

WEBVTT

00:00:10.622 --> 00:00:12.723

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.

00:00:12.823 --> 00:00:13.776

20장이예요.

00:00:13.876 --> 00:00:18.201

어문 규정에서의 외래어, 로마자 표기법은 사실은 주된 부분은 아니죠.

00:00:18.301 --> 00:00:23.113

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외래어 표기법은 정말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,

00:00:23.213 --> 00:00:27.775

로마자 표기법은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

00:00:27.875 --> 00:00:30.185

지금 통해서 적응만 해보자고요.

00:00:30.285 --> 00:00:33.513

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.

00:00:33.613 --> 00:00:37.842

외래어 표기법 첫 번째, 이제 1장, 2장, 3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.

00:00:37.942 --> 00:00:39.839

1장은 표기의 원칙을 얘기해줘요.

00:00:39.939 --> 00:00:45.220

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은 2장, 3장 4장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.

00:00:45.320 --> 00:00:48.529

그러니까 표기 세칙하고 그다음에 일람표 이런 거 나와 있는 건데.

00:00:48.629 --> 00:00:52.137

여러분 에스파냐어 일대일로 대응시키고, 의미 없잖아요, 그렇죠?

00:00:52.237 --> 00:00:54.903

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면 되겠습니다.

00:00:55.003 --> 00:00:56.159

먼저 표기 원칙 첫 번째.

00:00:56.259 --> 00:01:00.365

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했는데.

00:01:00.465 --> 00:01:02.714

선생님, 24개가 뭐예요? 의미 없어.

00:01:02.814 --> 00:01:07.688
24 자모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
것들은 그냥 더해진 것들로 다 써요.

00:01:07.788 --> 00:01:10.754
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미
없는 조항이더라고요, 그렇죠?

00:01:10.854 --> 00:01:13.843
의미 없고, 이제 2항 갑니다.

00:01:13.943 --> 00:01:19.218
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
1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어요.

00:01:19.318 --> 00:01:21.896
이제 적용해 볼게요.

00:01:21.996 --> 00:01:24.867
제2장에 보면 표기
일람표라는 게 있어요.

00:01:24.967 --> 00:01:29.179
거기에 이제 국제 음성 기호도
있고, 국제 음성 기호도 있고,

00:01:29.279 --> 00:01:33.778
그다음에 이제 에스파냐어,
그다음에 태국어, 타이어

00:01:33.878 --> 00:01:35.294
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옵니다.

00:01:35.394 --> 00:01:39.271
그런데 이제 그런 쪽하고 한글
대조표의 일부를 갖다 봤어요.

00:01:39.371 --> 00:01:46.230
국제 음성 기호에 알파벳 아니라
발음상 F 발음이 나왔을 때

00:01:46.330 --> 00:01:50.028
한글에는 모음 앞에서는
프로 반영하고,

00:01:50.128 --> 00:01:53.680
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
프로 반영해서 쓰라고

00:01:53.780 --> 00:01:56.021
원칙적 1기호를 연결시켰어요.

00:01:56.121 --> 00:02:02.505
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
F로 발음되는 이 단어들을

00:02:02.605 --> 00:02:04.216
ㅎ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

00:02:04.316 --> 00:02:08.774

그래서 화일이 아니라
파일, 화이팅이 아니라.

00:02:08.874 --> 00:02:10.861

잘 쓰셔야 돼요, 파이팅이
맞아요, 여러분.

00:02:10.961 --> 00:02:12.837

화이팅이라고 정말 잘못 쓰잖아요.

00:02:12.937 --> 00:02:13.564

안 돼.

00:02:13.664 --> 00:02:16.999

그럼 모든 F 발음이 나오는
단어들은 다 표으로 쓰냐고요?

00:02:17.099 --> 00:02:22.618

네, 후라이팬이 아니라
프라이팬, 알겠죠?

00:02:22.718 --> 00:02:24.551

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?

00:02:24.651 --> 00:02:26.860

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.

00:02:26.960 --> 00:02:27.423

알겠죠?

00:02:27.523 --> 00:02:28.864

그래서 당연한 거예요.

00:02:28.964 --> 00:02:32.338

F 발음이 나오는 것들은 모두
다 표으로 처리한다고 하는

00:02:32.438 --> 00:02:33.837

그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고요.

00:02:33.937 --> 00:02:39.849

그다음 국제 음성 기호에 U로
발음되는 것은 우로 발음합니다.

00:02:39.949 --> 00:02:40.661

표기합니다.

00:02:40.761 --> 00:02:44.756

다음, 일본어 표기 일람표도
있는데 거기 가나 표기에.

00:02:44.856 --> 00:02:46.184

저 몰라요, 일본어 몰라.

00:02:46.284 --> 00:02:48.751

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있는데,
애도 우로 발음되게 되어 있어요.

00:02:48.851 --> 00:02:55.589

그래서 애는 보시면 여기 U가
음성 기호로 U가 걸려 있는데.

00:02:55.689 --> 00:02:59.876

애를 일대일 대응에 우로
발음하기로 했기 때문에

00:02:59.976 --> 00:03:03.028

쥬로 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.

00:03:03.128 --> 00:03:04.162

어떻게 한다?

00:03:04.262 --> 00:03:06.239

쥬스가 된다는 얘기죠.

00:03:06.339 --> 00:03:09.047

쥬스가 아니라 쥬스로
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03:09.147 --> 00:03:13.105

동시에 피카추.

00:03:13.205 --> 00:03:16.806

애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
실제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쓰고

00:03:16.906 --> 00:03:19.191

마지막 글자가 이거예요,
가나 표기로.

00:03:19.291 --> 00:03:20.926

그런데 애로 뭐로 반영하기로?

00:03:21.026 --> 00:03:21.771

이렇게 되어 있는 거.

00:03:21.871 --> 00:03:25.445

그러니까 피카츄가 아니라
피카추 이렇게 쓰는 것이

00:03:25.545 --> 00:03:29.928

일대일 기호와 음운을 맞춰주는 방식에
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.

00:03:30.028 --> 00:03:31.908

한 가지.

00:03:40.776 --> 00:03:49.922

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애네는
절대 안 써요, 그래서.

00:03:50.022 --> 00:03:52.225

이게 안 나와요, 발음이.

00:03:52.325 --> 00:03:54.288

우리가 이걸 다 외우는
게 아니기 때문에.

00:03:54.388 --> 00:03:55.763

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, 빨리.

00:03:55.863 --> 00:03:59.817

애네는 전부 다 어떻게 적용하셔야
되냐면 외래어 표기상

00:03:59.917 --> 00:04:01.836
자, 단모음으로 갑니다.

00:04:01.936 --> 00:04:11.511
자, 저, 조, 주, 차, 처,
초, 추로 간다는 얘기예요.

00:04:11.611 --> 00:04:13.704
무슨 얘기냐?

00:04:13.804 --> 00:04:16.724
어떤 거 있을까요?

00:04:16.824 --> 00:04:20.437
쥬스 아니예요, 조스라고
써야 된다는 거죠.

00:04:20.537 --> 00:04:23.723
쥬스 아니예요,
주스라고 써야 됩니다.

00:04:23.823 --> 00:04:26.705
챠트가 아니라 차트로
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04:26.805 --> 00:04:31.348
그다음에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으로
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

00:04:31.448 --> 00:04:35.157
그다음에 추러스가 아니라
추러스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.

00:04:35.257 --> 00:04:36.456
아시겠습니까?

00:04:36.556 --> 00:04:40.117
그러면 차, 저, 조, 주, 차,
처, 초, 추는 안 되는데,

00:04:40.217 --> 00:04:43.511
예를 들면 샤, 셔, 쇼, 슈 이런 건 되나요?
돼요.

00:04:43.611 --> 00:04:45.691
그거는 뭐냐면 또 원칙이 있어요.

00:04:45.791 --> 00:04:46.807
이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.

00:04:46.907 --> 00:04:50.352
이러한 발음 뒤에 나오는
모음의 결합에 의해서

00:04:50.452 --> 00:04:52.671
그게 뭐 샤, 셔, 쇼, 슈
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.

00:04:52.771 --> 00:04:56.682
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베트
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.

00:04:56.782 --> 00:04:57.435
잘못 쓰는 거예요.

00:04:57.535 --> 00:04:59.203
서벳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.

00:04:59.303 --> 00:05:02.513
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워둘 만한
것은 하나 정도 있는 거죠.

00:05:02.613 --> 00:05:05.336
첫 번째, F 발음 나는
거ㅎ 절대 안 돼.

00:05:05.436 --> 00:05:06.489
표으로 쓰라는 것.

00:05:06.589 --> 00:05:10.259
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자, 저,
쵸, 쥬, 차, 처, 초, 추 안 되고,

00:05:10.359 --> 00:05:12.820
이렇게 단모음으로 쓰는
것이 옳다는 겁니다.

00:05:12.920 --> 00:05:16.913
이거 안 되고, 이거 되는 정도만
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05:17.013 --> 00:05:19.924
다음, 3항에 나와
있는 내용을 보시면

00:05:20.024 --> 00:05:23.027
받침에는 ㄱ, ㄴ, ㄷ,
ㅁ, ㅂ, ㅅ, ㅇ만

00:05:23.127 --> 00:05:24.729
쓰라고 되어 있어요.

00:05:24.829 --> 00:05:28.006
이것에 의해서 절대 쓰지 말아야
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.

00:05:28.106 --> 00:05:30.210
어떻게 됩니까? 라켈, 라켓.

00:05:30.310 --> 00:05:32.366
트 안 되죠,
ㅅ으로 써야 된다.

00:05:32.466 --> 00:05:34.677
다음, 커피숍, 커피숲.

00:05:34.777 --> 00:05:37.445
표 안 되죠,
ㅂ으로 써야 된다.

00:05:37.545 --> 00:05:42.749
표이나 트의 경우에는 받침으로
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.

00:05:42.849 --> 00:05:44.686
다음, 4항입니다.

00:05:44.786 --> 00:05:50.304
파열음의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
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5:50.404 --> 00:05:53.243
원칙으로 한다, 이게 사실
좀 애매하죠, 항상.

00:05:53.343 --> 00:05:56.062
원칙으로 한대요.

00:05:56.162 --> 00:05:57.054
이런 것들입니다.

00:05:57.154 --> 00:05:59.620
돈가스, 돈까스.

00:05:59.720 --> 00:06:01.977
우리가 발음할 때 돈까스라고
발음해요, 그렇지요?

00:06:02.077 --> 00:06:03.360
그런데 뭐가 맞겠어요?

00:06:03.460 --> 00:06:06.213
돈가스가 맞아요, 표기가.

00:06:06.313 --> 00:06:08.350
다음, 서비스, 써비스.

00:06:08.450 --> 00:06:09.181
어떤 게 맞다?

00:06:09.281 --> 00:06:12.287
서비스가 맞다.

00:06:12.387 --> 00:06:14.777
까나페, 카나페.

00:06:14.877 --> 00:06:15.636
뭔지 알죠?

00:06:15.736 --> 00:06:16.599
뭐가 맞다?

00:06:16.699 --> 00:06:18.571
카나페가 맞다.

00:06:18.671 --> 00:06:21.619
삿뽀로, 삿포로 뭐가 맞다?

00:06:21.719 --> 00:06:23.709
삿포로가 맞다.

00:06:23.809 --> 00:06:24.511
알겠습니까?

00:06:24.611 --> 00:06:26.848
된소리 안 쓴다는 거예요.

00:06:26.948 --> 00:06:28.774
파열음만 그런 거 아니예요.

00:06:28.874 --> 00:06:30.376
파찰음도 안 써요.

00:06:30.476 --> 00:06:32.127
그냥 된소리는 안 써요.

00:06:32.227 --> 00:06:33.591
안 쓴다고 보면 돼.

00:06:33.691 --> 00:06:34.456
다 안 써요?

00:06:34.556 --> 00:06:35.375
예외가 있어.

00:06:35.475 --> 00:06:37.994
타이어, 베트남어 계열은
예외로 인정합니다.

00:06:38.094 --> 00:06:40.429
그래서 푸켓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.

00:06:40.529 --> 00:06:43.848
푸켓이 아니라 휴양지로
많이 가는 푸켓.

00:06:43.948 --> 00:06:45.932
다음에 똑똑 뭔지 아세요, 똑똑?

00:06:46.032 --> 00:06:47.859
거기 보면 삼륜자동차가 있어.

00:06:47.959 --> 00:06:51.766
그래서 거기 가서 교통수단이
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,

00:06:51.866 --> 00:06:56.354
또 되게 험지도 많고 그러니까
삼륜자동차로 태우는 택시 개념이죠.

00:06:56.454 --> 00:06:57.841
툽툽이라고 많이 하던데요.

00:06:57.941 --> 00:06:58.331
아니예요.

00:06:58.431 --> 00:07:00.474
툽툽이, 표기상 등재가
되어 있어요.

00:07:00.574 --> 00:07:02.038

역시 된소리 표기로 인정합니다.

00:07:02.138 --> 00:07:03.724
호치민시 베트남에 있죠?

00:07:03.824 --> 00:07:06.106
아니야, 호찌민시라고
하는 게 맞아요.

00:07:06.206 --> 00:07:07.342
그다음에 분짜.

00:07:07.442 --> 00:07:12.363
분짜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
또 먹는데, 베트남 음식.

00:07:12.463 --> 00:07:15.192
사실 똥양꿍 있잖아요, 똥양꿍.

00:07:15.292 --> 00:07:17.054
똥양꿍을 실어주려고
했는데 그건 아직

00:07:17.154 --> 00:07:18.715
사전에 등재가 되어
있지 않더라고요.

00:07:18.815 --> 00:07:22.027
그래서 그거는 그냥
일단 빼놓은 상태였고.

00:07:22.127 --> 00:07:23.260
숨땀 이런 거.

00:07:23.360 --> 00:07:24.279
맛있어, 너무 맛있어.

00:07:24.379 --> 00:07:26.018
파파야 해서 먹는 거.

00:07:26.118 --> 00:07:28.016
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
좀 차이가 나는데.

00:07:28.116 --> 00:07:33.258
이런 것들, 태국어 또 이제 베트남어
이쪽으로는 된소리 인정해줘요.

00:07:33.358 --> 00:07:37.939
그런데 그외의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
아니면 스페인어, 일본어

00:07:38.039 --> 00:07:39.464
다 안 돼. 알겠죠?

00:07:39.564 --> 00:07:42.756
그래서 일단 된소리 안 된다는
거는 외워둘 법해요.

00:07:42.856 --> 00:07:44.474
다음.

00:07:46.080 --> 00:07:48.302

이미 굳어진 외래어는
관용을 존중합니다.

00:07:48.402 --> 00:07:50.029

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.

00:07:50.129 --> 00:07:51.530

이런 것도 문제가 돼, 사실은.

00:07:51.630 --> 00:07:54.153

앞에 있는 4항 같은
경우에도 원칙으로 한다,

00:07:54.253 --> 00:07:58.450

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
원칙, 예외가 인정되는 것처럼

00:07:58.550 --> 00:08:01.897

5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
관용을 존중한다는 게

00:08:01.997 --> 00:08:05.370

뭐가 관용을 인정하는 외래어인지
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

00:08:05.470 --> 00:08:06.526

쉽지 않는 거죠.

00:08:06.626 --> 00:08:09.240

물론 이런 것들은 알아야
될 것 같아요.

00:08:09.340 --> 00:08:12.172

라디오예요, 레이디오예요?

00:08:12.272 --> 00:08:13.323

당연히 이렇게 쓰죠.

00:08:13.423 --> 00:08:15.504

그런데 여러분 발음
아시잖아요, 레이디오예요.

00:08:15.604 --> 00:08:24.009

이 레이디오가 레이저, 레이저의
발음의 레이랑 똑같이 출발하거든요.

00:08:24.109 --> 00:08:25.535

레이저 어떻게 써야 돼요?

00:08:25.635 --> 00:08:27.276

저로 씹니까, 저로 씹니까?

00:08:27.376 --> 00:08:30.572

아까 자, 저, 죠, 주, 차,
쳐, 죠, 주 안 된다고 했죠.

00:08:30.672 --> 00:08:33.020

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, 레이저.

00:08:33.120 --> 00:08:35.806

그러면 이게 발음이
똑같이 되는 거 쓸 때

00:08:35.906 --> 00:08:41.382

개는 레이저는 이렇게 써놓고
왜 애는 발음대로 안 쓰냐.

00:08:41.482 --> 00:08:44.644

원래 발음대로 표기 일람표랑 일대일
맞춰보면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.

00:08:44.744 --> 00:08:46.638

그런데 이거를 관용으로
인정해주는 거예요.

00:08:46.738 --> 00:08:51.362

우리가 늘 이대로 써왔으니까
라디오로 가자라는 식으로.

00:08:51.462 --> 00:08:55.892

다음, 마니아, 매니아 중에서
뭐가 맞느냐고 한다면

00:08:55.992 --> 00:08:57.414

마니아를 맞다고 보는 거죠.

00:08:57.514 --> 00:08:59.002

물론 발음은 매니아예요.

00:08:59.102 --> 00:09:02.176

매니아인데 마니아를 인정해주는
거예요, 관용에 의해서.

00:09:02.276 --> 00:09:04.759

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, 그렇죠?

00:09:04.859 --> 00:09:06.628

그다음에 추리닝, 트레이닝.

00:09:06.728 --> 00:09:08.040

둘 다 아니야, 사실은.

00:09:08.140 --> 00:09:10.211

이런 건 용어로 없어요, 그렇죠?

00:09:10.311 --> 00:09:12.395

애네는 이제 다른 영어 계열로.

00:09:12.495 --> 00:09:13.875

우리는 쿵글리시 아녜니까, 이거는?

00:09:13.975 --> 00:09:18.516

그런데 어쨌든 써야 된다고
한다면 발음상으로는,

00:09:18.616 --> 00:09:21.129

알파벳 발음에 의하면
트레이닝 써야죠.

00:09:21.229 --> 00:09:22.436

그런데 우리는 뭐 쓴다?

00:09:22.536 --> 00:09:23.158
그냥 추리닝.

00:09:23.258 --> 00:09:25.336
역시나 추는 쓸 수 없어요.

00:09:25.436 --> 00:09:27.291
자, 저, 죠, 쥬, 차,
쳐, 초, 추는 안 돼요.

00:09:27.391 --> 00:09:30.633
그래서 추리닝 이렇게 쓰는 것이
관용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.

00:09:30.733 --> 00:09:32.068
파마, 펌.

00:09:32.168 --> 00:09:33.957
사실 둘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?

00:09:34.057 --> 00:09:36.312
정식 용어를 쓰려면 퍼머넌트
이렇게 써야 되죠.

00:09:36.412 --> 00:09:42.143
그런데 퍼머넌트를 줄여 썼다고 쳐서
펌으로 쓰는 것도 좀 그럴싸한데,

00:09:42.243 --> 00:09:43.137
저 펌 해주세요?

00:09:43.237 --> 00:09:47.244
아니요, 관용에 의해서 우리는 수십
년 동안 파마라고 써왔기 때문에

00:09:47.344 --> 00:09:48.233
이거로 인정합니다.

00:09:48.333 --> 00:09:52.206
그래서 애가 맞고 애는 외래어
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.

00:09:52.306 --> 00:09:54.655
그래서 웬지 좀 파마해 주세요
그러면 아줌마 파마 느낌,

00:09:54.755 --> 00:09:57.638
뽀글뽀글 이 느낌 나고, 펌
해주세요 이러면 세련되어 보이고

00:09:57.738 --> 00:09:59.875
그런 게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09:59.975 --> 00:10:00.975
안 된다는 거죠.

00:10:01.075 --> 00:10:03.093
샤쓰, 셔츠.

00:10:03.193 --> 00:10:08.438

이쯤 되면 셔츠가 외래어 표기에
정확한 발음상 표기이고,

00:10:08.538 --> 00:10:11.990

샤쓰가 관용 아니야인데
이거는 둘 다 인정.

00:10:12.090 --> 00:10:15.645

그래서 애는 관용에 의한 표기이고,
애는 발음에 의한 표기.

00:10:15.745 --> 00:10:16.803

둘 다 인정.

00:10:16.903 --> 00:10:18.642

또 잠바와 점퍼.

00:10:18.742 --> 00:10:23.830

점퍼가 발음 그리고 잠바가 관용에
의한 건데 둘 다 인정.

00:10:23.930 --> 00:10:27.224

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가
맞고 뭐가 틀린지를

00:10:27.324 --> 00:10:30.053

그냥 일대일로 외워야
되는 상황이거든요.

00:10:30.153 --> 00:10:32.921

사실상 우리가 이런 걸 외워서
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

00:10:33.021 --> 00:10:37.325

일단 애네는 아주 좀 많이 알 만한
걸 예로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

00:10:37.425 --> 00:10:41.694

그래서 우선 지금 앞서 몇 가지들만
조건을 좀 외워두세요, 아시겠죠?

00:10:41.794 --> 00:10:44.656

그래서 일단 자, 저, 죠, 쥬,
차, 처, 초, 추 안 된다는 거

00:10:44.756 --> 00:10:45.764

그런 거 간다는 거.

00:10:45.864 --> 00:10:49.465

F 발음 ㅇ 안 되고 포으로
간다는 거, 된소리 안 쓴다는 거.

00:10:49.565 --> 00:10:51.633

이것만 기억하셔도
외래어는 충분합니다.

00:10:51.733 --> 00:10:55.579

몇 개 한번 재미로
좀 보도록 할게요.

00:10:55.679 --> 00:10:56.304
예문입니다.

00:10:56.404 --> 00:10:57.993
어떻게 쓸까요?

00:10:58.093 --> 00:11:00.110
단어는 다 볼 수
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11:00.210 --> 00:11:05.295
보통 이거 보면 타올, 타올?

00:11:05.395 --> 00:11:09.164
타올이 아니라 타월로
외래어 표기가 맞고요.

00:11:09.264 --> 00:11:12.077
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.

00:11:12.177 --> 00:11:14.667
바디로션, 어때요?

00:11:14.767 --> 00:11:18.123
그런데 여러분, 똑같은 이걸 쓰는데

00:11:18.223 --> 00:11:21.234
보디빌딩이라고 해요,
바디빌딩이라고 해요?

00:11:21.334 --> 00:11:22.812
보디빌딩이라고 하죠, 그렇지요?

00:11:22.912 --> 00:11:24.546
그러니까 이제 보디로
발음이 되어야 돼요.

00:11:24.646 --> 00:11:26.997
그래서 이제 보디로션이
맞습니다, 알겠죠?

00:11:27.097 --> 00:11:28.653
바디로션이 아니라 보디로션.

00:11:28.753 --> 00:11:32.437
또 이제 외투 개념으로
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.

00:11:32.537 --> 00:11:34.727
얇은 거, 뭐예요?

00:11:34.827 --> 00:11:35.496
가디건.

00:11:35.596 --> 00:11:37.795
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
발음에 가가 나오니까?

00:11:37.895 --> 00:11:38.534
안 나오죠.

00:11:38.634 --> 00:11:40.254

카디건이 맞아요, 카디건.

00:11:40.354 --> 00:11:45.568

그래서 타월로 몸을 닦고 보디로션
바른 후에 카디건으로 이렇게.

00:11:45.668 --> 00:11:46.258

볼까요?

00:11:46.358 --> 00:11:49.112

점심으로, 뭘니까?

00:11:49.212 --> 00:11:51.324

동그랗게 생긴 거.

00:11:52.484 --> 00:11:53.554

도넛이죠, 도넛.

00:11:53.654 --> 00:11:55.177

그런데 이제 뭘 받침으로 쓰겠어요?

00:11:55.277 --> 00:11:56.700

스를 써야 되겠죠.

00:11:56.800 --> 00:12:00.699

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 먹었으니까
복수로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00:12:00.799 --> 00:12:01.597

여러 개 먹었어.

00:12:01.697 --> 00:12:03.347

그러면 도너츠?

00:12:03.447 --> 00:12:04.114

아니요, 안 돼요.

00:12:04.214 --> 00:12:05.976

왜냐하면 도넛만 실려 있기 때문에.

00:12:06.076 --> 00:12:06.851

복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?

00:12:06.951 --> 00:12:08.360

도넛들 이러면 되는 거죠.

00:12:08.460 --> 00:12:09.497

우리 접미사 들 있잖아.

00:12:09.597 --> 00:12:11.479

그래서 도넛들을 먹었다
이렇게 쓰는 거지

00:12:11.579 --> 00:12:15.045

도너츠 해서 복수 개념으로는
반영하지 않습니다.

00:12:15.145 --> 00:12:15.826

다음, 애는요?

00:12:15.926 --> 00:12:16.852

우리 고민할 거야.

00:12:16.952 --> 00:12:19.341

스탯, 스탭프.

00:12:19.441 --> 00:12:20.408

표 써야 되냐?

00:12:20.508 --> 00:12:21.717

표 써요, 안 써요?

00:12:21.817 --> 00:12:23.604

아까 전에 받침으로 표
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?

00:12:23.704 --> 00:12:24.227

안 들어가죠.

00:12:24.327 --> 00:12:25.286

그러면 애는 어떻게 씹니까?

00:12:25.386 --> 00:12:26.009

풀어줍니다.

00:12:26.109 --> 00:12:27.789

스태프로 풀어주게 되죠.

00:12:27.889 --> 00:12:29.085

다음 저거는요.

00:12:29.185 --> 00:12:30.504

카페트로 써야 되냐?

00:12:30.604 --> 00:12:33.847

카페트가 아니라 받침으로
스를 인정하죠.

00:12:33.947 --> 00:12:35.415

그래서 카펫 이렇게 들어갑니다.

00:12:35.515 --> 00:12:38.823

그래서 도넛, 스탭프, 카펫.

00:12:38.923 --> 00:12:42.366

그 선수는 20년의,
어렵지 않죠, 이걸.

00:12:42.466 --> 00:12:46.603

커리어가 무색하게 상대편의,
이런 부분이야, 이거.

00:12:46.703 --> 00:12:48.867

어떻게 해요?

00:12:48.967 --> 00:12:50.074

신호 쫓아요.

00:12:50.174 --> 00:12:52.155

사인, 된소리 된다 안 된다?

00:12:52.255 --> 00:12:52.736
안 된다.

00:12:52.836 --> 00:12:53.662
어떻게 쓴다?

00:12:53.762 --> 00:12:54.363
사인.

00:12:54.463 --> 00:12:58.637
심지어는 그래서 이게
되게 이상한데.

00:13:00.227 --> 00:13:02.930
이렇게 쓰셔야 돼요, 이때.

00:13:03.030 --> 00:13:04.129
비타민 시 이렇게.

00:13:04.229 --> 00:13:05.838
비타민 씨 안 된다니까, 이게.

00:13:05.938 --> 00:13:08.422
안 돼요, 철저하게 안 됩니다.

00:13:08.522 --> 00:13:10.799
어떻게 될까요?

00:13:10.899 --> 00:13:13.189
우리는 보통 컨닝, 컨닝
이렇게 많이 해요.

00:13:13.289 --> 00:13:16.852
그런데 컨닝이 아니라 커닝입니다.

00:13:16.952 --> 00:13:21.417
이것과 같은 원리로 런닝이
아니라 러닝이에요, 러닝.

00:13:21.517 --> 00:13:22.790
러닝머신.

00:13:22.890 --> 00:13:26.219
런닝맨 틀려, 러닝맨이야, 그렇지?

00:13:26.319 --> 00:13:29.799
그래서 러닝머신, 커닝
해서 그런 발음 나오게끔

00:13:29.899 --> 00:13:30.957
이렇게 나오는 구성인데.

00:13:31.057 --> 00:13:34.569
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되고요, 표기도
이렇게 됩니다, 외래어 표기.

00:13:34.669 --> 00:13:36.814
저거 뭐 메론이냐 멜론이냐.

00:13:36.914 --> 00:13:38.326
당연히 멜론이죠.

00:13:38.426 --> 00:13:40.326

이제 여기 밑줄 친
이유는 뭐냐면요.

00:13:40.426 --> 00:13:43.025

밑줄 친 부분, 여기
이제 뭐라고 해요?

00:13:43.125 --> 00:13:45.744

피부에 뭐 나고 이런
거 얘기하는 건데.

00:13:45.844 --> 00:13:49.230

영어로 가게 되면 알려지라고
우리가 쓰게 되죠.

00:13:49.330 --> 00:13:52.750

그런데 이 밑줄 친 이유가
뭐냐면 우리가 외래어를

00:13:52.850 --> 00:13:56.565

받아들이려고 할 때 영어로만
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13:56.665 --> 00:13:59.886

그게 프랑스어쪽 받아들일 수도
있고, 앙코르 같은 거,

00:13:59.986 --> 00:14:01.149

앙케트 이런 거.

00:14:01.249 --> 00:14:02.887

그다음에 뷔페 이런 것들.

00:14:02.987 --> 00:14:04.693

프랑스어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.

00:14:04.793 --> 00:14:08.739

그다음에 이제 독일어에서 받아들일
수 있는데, 저건 독일어예요.

00:14:08.839 --> 00:14:12.588

그래서 우리가 알려지 쪽으로 가지
않고 독일어의 계열로 받아들여서

00:14:12.688 --> 00:14:14.728

알레르기 이렇게 이제
가게 되는 거고요.

00:14:14.828 --> 00:14:18.707

이거는 케익 이렇게 쓸 수 있나요?

00:14:20.231 --> 00:14:21.635

ㄱ 우리 인정합니까?

00:14:21.735 --> 00:14:22.361

안 하죠.

00:14:22.461 --> 00:14:23.324

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

00:14:23.424 --> 00:14:25.453
케이크로 풀리겠죠.

00:14:25.553 --> 00:14:26.764
이거 어떻게 발음될까요?

00:14:26.864 --> 00:14:31.606
이게 이제 이건데 이런 발음이
나오는 뒤에 뭐가 모음으로

00:14:31.706 --> 00:14:33.042
오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.

00:14:33.142 --> 00:14:34.998
샤, 셔, 쇼, 슈
이렇게 바뀌는데.

00:14:35.098 --> 00:14:37.568
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쉬림프
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.

00:14:37.668 --> 00:14:41.716
그런데 그게 아니라 슈림프가
맞습니다, 슈림프.

00:14:41.816 --> 00:14:43.490
새우.

00:14:43.590 --> 00:14:45.304
하나만 더 볼게요.

00:14:45.404 --> 00:14:47.556
이거 잘 보세요.

00:14:47.656 --> 00:14:49.629
어떻게 쓸까요?

00:14:50.456 --> 00:14:56.284
발음이 옐로우 하고 반모음이
우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죠.

00:14:56.384 --> 00:14:59.982
옐로우 하고 나올 텐데 애를
우를 쓸 거냐 말 거냐.

00:15:00.082 --> 00:15:03.162
옐로우 카드인가요 아니면
옐로 카드인가요?

00:15:03.262 --> 00:15:05.549
스노우보드인가요 아니면
스노보드인가요?

00:15:05.649 --> 00:15:06.944
이거예요, 같은 원리거든요.

00:15:07.044 --> 00:15:08.877
그래서 이거는 옐로로 끝납니다.

00:15:08.977 --> 00:15:11.233

그런데 이 원리에 의하면
다양한 단어들이

00:15:11.333 --> 00:15:13.226

사실은 우를 쓰면 안
된다는 게 되어 버려요.

00:15:13.326 --> 00:15:17.466

어떻게 되냐면 레인보우가 아니라
레인보, 외래어로 간다면.

00:15:17.566 --> 00:15:19.574

외국어로 가면 레인보우
쓰면 되겠지만

00:15:19.674 --> 00:15:22.126

외래어로 간다면 레인보
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.

00:15:22.226 --> 00:15:23.760

그다음에 스노보드
이렇게 쓰는 겁니다.

00:15:23.860 --> 00:15:28.028

이것도 옐로 칼라,
컬러인데 이거는 컬러죠.

00:15:28.128 --> 00:15:34.922

그다음에 애는 옷깃 여기에 있는
거니까 칼라가 있는 셔츠, 셔츠

00:15:35.022 --> 00:15:36.043

둘 다 쓸 수 있다고 했죠.

00:15:36.143 --> 00:15:37.938

그다음에 애는 뭘까요?

00:15:38.038 --> 00:15:40.798

슬 이렇게 쓰면 료 써야
된다는 애긴데 못 쓰잖아요.

00:15:40.898 --> 00:15:43.193

그래서 수프 이렇게
쓰게 되어 있고요.

00:15:43.293 --> 00:15:47.162

이거 닳는 거 휴지, 냅킨
이렇게 쓰면 되겠죠.

00:15:47.262 --> 00:15:48.408

일부 예입니다.

00:15:48.508 --> 00:15:49.918

그냥 재미로 한번 봤다고
보시면 되겠고요.

00:15:50.018 --> 00:15:51.866

그런데 일부 요소들이
좀 있긴 했어요.

00:15:51.966 --> 00:15:55.343

아까 얘기했던 거 로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, 옐로 이렇게 쓴다.

00:15:55.443 --> 00:15:56.686
그래서 윈도우가 없어요.

00:15:56.786 --> 00:15:57.654
윈도예요, 윈도.

00:15:57.754 --> 00:16:01.526
그래서 오 계열의 반모음 쪽은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것들.

00:16:01.626 --> 00:16:03.942
몇 가지 정도는 알아둘 법합니다.

00:16:04.042 --> 00:16:06.950
외래어 표기법은 사실 문제화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

00:16:07.050 --> 00:16:10.020
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바로 로마자 표기입니다.

00:16:10.120 --> 00:16:14.241
왜냐하면 로마자 표기는 표를 줘요.

00:16:14.341 --> 00:16:15.206
표를 줄 거예요.

00:16:15.306 --> 00:16:20.089
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음상에 의해서 로마자 표기를

00:16:20.189 --> 00:16:24.871
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됩니다.

00:16:24.971 --> 00:16:25.685
목적이 달라요, 여러분.

00:16:25.785 --> 00:16:27.512
외래어 표기법은 누구를 위해서예요?

00:16:27.612 --> 00:16:29.122
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예요.

00:16:29.222 --> 00:16:31.337
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?

00:16:31.437 --> 00:16:34.372
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왔는데 표지판 보고

00:16:34.472 --> 00:16:35.989
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

00:16:36.089 --> 00:16:40.212
그래야 경복궁 어디 가요?

00:16:40.312 --> 00:16:42.321
경복궁, 경복궁?

00:16:42.434 --> 00:16:43.568
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?

00:16:43.668 --> 00:16:46.706
발음을 보는데 강브키 이렇게
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

00:16:46.806 --> 00:16:49.525
그러니까 발음을 보고, 형태를
보고, 로마자를 보고

00:16:49.625 --> 00:16:52.520
경복궁이라고 읽을 수
있게끔 만들어주는 거.

00:16:52.620 --> 00:16:53.955
그래서 그게 바로 로마자.

00:16:54.055 --> 00:16:55.685
외국 사람들을 위해서.

00:16:55.785 --> 00:16:59.157
그래서 이게 원칙을 딱
지켜줘야 될 텐데.

00:16:59.257 --> 00:17:00.877
표기의 원칙 1항입니다.

00:17:00.977 --> 00:17:05.025
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
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00:17:05.125 --> 00:17:06.513
뭐가 중요합니까?

00:17:06.613 --> 00:17:08.611
발음에 의해서, 발음에 의해서.

00:17:08.711 --> 00:17:11.139
표기가 아니라 발음에 의해서.

00:17:11.239 --> 00:17:16.030
로마자 이외의 부호는
되도록 사용하지 않겠다.

00:17:16.130 --> 00:17:17.597
2장, 표기 일람입니다.

00:17:17.697 --> 00:17:19.766
모음은 각호와 같이 적는다.

00:17:19.866 --> 00:17:23.054
이제부터 주목, 짝.

00:17:23.718 --> 00:17:29.535
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애네를 어떻게
적을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

00:17:29.635 --> 00:17:31.984
사실은, 적용해 볼게요.

00:17:32.084 --> 00:17:35.694
쉬운 것부터 확인해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7:35.794 --> 00:17:38.023
쉽죠?

00:17:38.123 --> 00:17:39.249
아 a로 쓰겠죠.

00:17:39.349 --> 00:17:43.119
그다음에 오 o로 쓰겠죠, 오 o.

00:17:43.219 --> 00:17:45.031
그다음에 우 u로 쓰겠죠.

00:17:45.131 --> 00:17:45.883
어려운 거 아니에요.

00:17:45.983 --> 00:17:47.493
이 i로 쓰겠죠.

00:17:47.593 --> 00:17:51.488
이것부터 네 개는 너무
쉬운 거 아니야, 그렇지?

00:17:51.588 --> 00:17:53.709
아, 오, 우, 이.

00:17:53.809 --> 00:17:56.371
이 정도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.

00:17:56.471 --> 00:17:57.907
그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.

00:17:58.007 --> 00:17:59.296
서울입니다, 서울.

00:17:59.396 --> 00:18:02.778
여러분, 서울 어떻게 써요?

00:18:02.878 --> 00:18:04.337
모르는 사람 있습니까?

00:18:04.437 --> 00:18:08.891
Seoul, 로마자
표기예요, 이게.

00:18:08.991 --> 00:18:11.612
그럼 일대일로 적용하는 거라니까요.

00:18:11.712 --> 00:18:14.959
그러면 s가 스일 것이고

00:18:15.059 --> 00:18:17.574
어에 해당하는 게 뭐라는
걸 알 수 있는 거죠?

00:18:17.674 --> 00:18:20.081

지금 뒤에 우가 나오는
게 u일 거 아닙니까?

00:18:20.181 --> 00:18:25.236

그러면 eo가 어구나라는
걸 아는 거예요.

00:18:25.336 --> 00:18:28.308

그래서 여기에 있는 eo가 어예요.

00:18:28.408 --> 00:18:32.437

그러니까 어가 뭘까를 고민하지 말고
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.

00:18:32.537 --> 00:18:34.981

이제 그다음 가보겠습니다.

00:18:35.081 --> 00:18:36.696

부산 어렵지 않겠죠, 부산?

00:18:36.796 --> 00:18:40.318

부산 써볼게요, 부산.

00:18:41.429 --> 00:18:44.631

B, 우가 뭐였어요, u.

00:18:44.731 --> 00:18:48.953

그다음에 작게 써야죠.

00:18:49.053 --> 00:18:50.097

처음로 대문자로 쓰면 되죠.

00:18:50.197 --> 00:18:52.679

s 그다음 아, a.

00:18:52.779 --> 00:18:53.765

그다음에 n.

00:18:53.865 --> 00:18:54.672

어려운 거 없어요.

00:18:54.772 --> 00:18:56.882

그다음에 게 뭐냐면 제주인데,

00:18:56.982 --> 00:18:59.310

혹시 여러분 제주 어떻게
적는지 아세요?

00:18:59.410 --> 00:19:03.371

제주 보면 우리 제주 음료
같은 거 많이 볼 텐데.

00:19:03.471 --> 00:19:07.762

보면 이제 돌하르방이 있고 옆에
이제 로마자로 딱 적어놨어.

00:19:07.862 --> 00:19:08.579

어떻게 해놨어?

00:19:08.679 --> 00:19:12.535
Jeju죠?

00:19:12.635 --> 00:19:15.349
많이 봤죠, 여러분?

00:19:15.449 --> 00:19:16.863
이렇게 쓰잖아요, 제주.

00:19:16.963 --> 00:19:18.935
많이 안 봤어요?

00:19:19.035 --> 00:19:22.724
주 됐죠, ㅈ이 J라는
것도 대충 느낌 와.

00:19:22.824 --> 00:19:24.695
에에 해당하는 게
뭐라는 걸 발견했죠.

00:19:24.795 --> 00:19:25.274
뭐예요?

00:19:25.374 --> 00:19:26.909
e예요, e.

00:19:27.009 --> 00:19:28.796
여기 에에 해당하는 게 e예요.

00:19:28.896 --> 00:19:31.711
이거 확인해 봅시다, 예.

00:19:31.811 --> 00:19:34.201
됐어요, 됐습니까?

00:19:34.301 --> 00:19:37.270
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
하나 더 적어 볼게요.

00:19:37.370 --> 00:19:41.402
여러분 대구 어떻게 써요, 대구?

00:19:41.502 --> 00:19:45.288
D 그다음에 ae로 가죠?

00:19:45.388 --> 00:19:46.626
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?

00:19:46.726 --> 00:19:49.363
여기 애에 해당하는 게
ae라는 거 알 수 있죠?

00:19:49.463 --> 00:19:50.921
그다음에 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?

00:19:51.021 --> 00:19:52.810
gu 이렇게 쓰거든요.

00:19:52.910 --> 00:19:53.843
익숙하시죠, 이거?

00:19:53.943 --> 00:19:55.901

워낙 큰 도시들이니까.

00:19:56.001 --> 00:19:59.361

그래서 애에 해당하는
것도 ae구나.

00:19:59.461 --> 00:20:01.591

대구 생각하면 되는구나, 알겠죠?

00:20:01.691 --> 00:20:03.669

ae 똑같은 거예요, 원칙은.

00:20:03.769 --> 00:20:06.296

그다음에 이제 수원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20:06.396 --> 00:20:12.202

그전에 보은 가봅시다, 여기 보은.

00:20:12.302 --> 00:20:15.665

보은을 가는데, 이걸 대도시가
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잘 모를 텐데.

00:20:15.765 --> 00:20:20.922

혹시 여러분 이름 중에 여학생들
은 자 들어가는 친구들

00:20:21.022 --> 00:20:24.391

많을 것 같은데, 은 자
여러분 어떻게 씹니까?

00:20:24.491 --> 00:20:26.952

eun 이렇게 쓰죠, 그렇죠?

00:20:27.052 --> 00:20:29.163

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는
분들은 편할 거예요.

00:20:29.263 --> 00:20:33.591

어떻게 되냐면 Bo 일단 쓰고
그다음에 은이 으에 해당하는 게

00:20:33.691 --> 00:20:34.944

eu예요, eu.

00:20:35.044 --> 00:20:36.900

그다음에 n 이렇게 됩니다.

00:20:37.000 --> 00:20:38.691

그래서 보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.

00:20:38.791 --> 00:20:42.214

eu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
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.

00:20:42.314 --> 00:20:45.341

외우라는 거 아니예요, 이거 외우라는
거 아니라 적용해보자는 거예요.

00:20:45.441 --> 00:20:46.446

이거 표 줄 거예요.

00:20:46.546 --> 00:20:47.989
주고 쓰라는 건데 뭐, 그렇죠?

00:20:48.089 --> 00:20:51.283
그다음에 외에 해당하는
게 바로 oe예요.

00:20:51.383 --> 00:20:52.122
조금 어렵습니다.

00:20:52.222 --> 00:20:54.124
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, 괴산.

00:20:54.224 --> 00:20:57.462
괴산 한번 적어 본다면
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?

00:20:57.562 --> 00:20:59.778
처음에 이제 ㄱ은 G로 갑니다.

00:20:59.878 --> 00:21:06.102
그다음에 외에 해당하는 게 oe
괴 이렇게 써야 돼요, 괴산.

00:21:06.762 --> 00:21:07.979
이렇게 쓰면 되겠고요.

00:21:08.079 --> 00:21:13.029
그다음에 보면 위.

00:21:13.129 --> 00:21:15.839
위에 해당하는 거 wi인데.

00:21:15.939 --> 00:21:19.549
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를 한번
예를 들어 볼게요, 서귀포.

00:21:19.649 --> 00:21:22.258
이렇게 예를 들면 서는
아까 서울이랑 똑같죠.

00:21:22.358 --> 00:21:24.870
Seo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.

00:21:24.970 --> 00:21:27.503
귀니까 ㄱ g로 가면 되겠고.

00:21:27.603 --> 00:21:28.767
이제 위가 뭐다?

00:21:28.867 --> 00:21:31.797
wi.

00:21:31.897 --> 00:21:34.363
그다음에 po 이렇게 쓰게 됩니다.

00:21:34.463 --> 00:21:36.349
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 보고,

00:21:36.449 --> 00:21:38.453

선생님은 외웠으니까
이렇게 쓰는 건데

00:21:38.553 --> 00:21:41.826

여러분은 표 보고
확인만 하면 돼요.

00:21:41.926 --> 00:21:45.834

그다음에 나머지를 보면
이제 잘 보세요.

00:21:45.934 --> 00:21:48.160

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려드릴게요.

00:21:48.260 --> 00:21:52.168

단모음이 이렇게 잡혔는데
이중모음하고 무슨 관계냐.

00:21:52.268 --> 00:21:54.092

여러분 단모음은 뭐야?

00:21:54.192 --> 00:21:56.288

발음을 하는데 입술이나
혀의 움직임이 없는 거.

00:21:56.388 --> 00:21:57.299

이중모음 뭐야?

00:21:57.399 --> 00:21:59.505

발음을 하는데 혀나 입술의
움직임이 있는 거.

00:21:59.605 --> 00:22:04.790

그런데 단모음이 무엇과
만나 이중모음을 만들죠.

00:22:04.890 --> 00:22:06.356

무엇과 만나?

00:22:06.456 --> 00:22:07.378

단모음과 만나.

00:22:07.478 --> 00:22:11.943

즉,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데
있어서는 뭐의 도움이 필요하냐?

00:22:12.043 --> 00:22:16.281

반모음의 도움이 필요하죠.

00:22:16.381 --> 00:22:17.047

맞아요?

00:22:17.147 --> 00:22:19.230

그런데 반모음이 두 종류가
있잖아, 그렇지요?

00:22:19.330 --> 00:22:20.257

어떤 거?

00:22:20.357 --> 00:22:26.235

이 반모음 계열이 있고, 그다음에
오, 우 반모음 계열이 있잖아요.

00:22:26.335 --> 00:22:28.345
얼마나 쉬운지 아세요?

00:22:28.445 --> 00:22:30.997
이것만 덧붙여 주면 돼, 뭐?

00:22:31.097 --> 00:22:35.251
이 반모음은 뭐로 처리할 거냐면
y로 처리할 거야, 로마자.

00:22:35.351 --> 00:22:39.733
다음, 오, 우 반모음은 뭐로
처리할 거냐면 w로 처리할 거야.

00:22:39.833 --> 00:22:40.698
끝났어.

00:22:40.798 --> 00:22:43.027
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

00:22:43.127 --> 00:22:45.590
봅시다.

00:22:45.690 --> 00:22:46.676
구례가 있어요.

00:22:46.776 --> 00:22:49.160
지금 적어야 될 게 구례가 있는데.

00:22:49.260 --> 00:22:51.041
구례를 먼저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.

00:22:51.141 --> 00:22:52.753
구례 어떻게 쓸 건지 아세요?

00:22:52.853 --> 00:22:55.356
먼저 Gu는 알겠죠?

00:22:55.456 --> 00:22:59.801
그다음에 레를 쓸 건데, 초성에
있는 르은 이따가 보겠지만

00:22:59.901 --> 00:23:01.054
r이에요, r.

00:23:01.154 --> 00:23:06.704
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
이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.

00:23:06.804 --> 00:23:08.498
앞에 나왔던 단모음에는 없거든요.

00:23:08.598 --> 00:23:12.016
그런데 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
우리가 재료가 뭐였죠?

00:23:12.116 --> 00:23:16.974
이 반모음에다 예를 더하면

예가 나오죠, 예.

00:23:17.074 --> 00:23:18.267
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

00:23:18.367 --> 00:23:22.778
그럼 이 원칙에 의해서 반모음을
y로 처리한다니까요, 이 반모음을.

00:23:22.878 --> 00:23:25.092
그리고 이 예에 해당하는
게 뭐였습니까?

00:23:25.192 --> 00:23:27.300
제주 할 때 e였죠.

00:23:27.400 --> 00:23:29.891
이게 더해지면 돼요.

00:23:29.991 --> 00:23:34.095
ye 이게 더해진다고요, 이렇게.

00:23:34.195 --> 00:23:36.712
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
되는지 아시겠습니까?

00:23:36.812 --> 00:23:37.831
보세요.

00:23:37.931 --> 00:23:42.850
야는 이아죠, ya가 돼요.

00:23:42.950 --> 00:23:47.491
여는 이어죠, 그래서 yeo예요.

00:23:47.591 --> 00:23:48.295
그대로 갑니다.

00:23:48.395 --> 00:23:52.567
그다음에 요는 이오가 되죠,

00:23:52.667 --> 00:23:55.341
이오가 돼서 yo가 나오는
거예요, 원리가.

00:23:55.441 --> 00:23:59.106
그다음에 우는 이우 해서 yu예요.

00:23:59.206 --> 00:24:00.042
하나도 안 어렵죠?

00:24:00.142 --> 00:24:01.958
그다음에 애는 뭐예요?

00:24:02.058 --> 00:24:05.513
이 반모음 더하기 이거
더하면 되잖아, 애, 애.

00:24:05.613 --> 00:24:10.277
그래서 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
yae 이게 나오는 거죠.

00:24:10.377 --> 00:24:12.265
다음에 예는 방금 했어요.

00:24:12.365 --> 00:24:16.539
그러니까 y에다 예를 더해서
여기까지, 여기까지.

00:24:16.639 --> 00:24:20.269
이게 전부 다 이 반모음
계열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

00:24:20.369 --> 00:24:24.392
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뭐만
빨리 생각하면 되냐면

00:24:24.492 --> 00:24:25.609
뭐랑 뭐가 더해졌지?

00:24:25.709 --> 00:24:27.344
야 그러면 아가 뭐였지?

00:24:27.444 --> 00:24:28.352
애는 뭐였지?

00:24:28.452 --> 00:24:29.792
애, 애가 뭐였지?

00:24:29.892 --> 00:24:30.936
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.

00:24:31.036 --> 00:24:32.597
y만 더 더하면 되니까.

00:24:32.697 --> 00:24:34.080
애네는 어떻게 했어요?

00:24:34.180 --> 00:24:35.243
w만 더하면 돼.

00:24:35.343 --> 00:24:37.496
그러면 와의 경우에는 뭐?

00:24:37.596 --> 00:24:40.887
오 반모음이니까 w 더하고
그다음에 아 가면 되잖아.

00:24:40.987 --> 00:24:44.581
오아 그러면 wa, 그렇죠?

00:24:44.681 --> 00:24:49.021
그다음에 왜 가면 오왜니까
w에다 애 어디 갔어 애?

00:24:49.121 --> 00:24:52.995
이거 ae이니까 wae 이런
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.

00:24:53.095 --> 00:24:54.021
얼마나 쉽습니까?

00:24:54.121 --> 00:24:57.367

단, 하나가 예외가
있어요, 하나가.

00:24:57.467 --> 00:24:58.622

두 개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.

00:24:58.722 --> 00:25:01.988

이중모음에서는 뭐를 신경
써줘야 되냐면 이놈이랑

00:25:02.088 --> 00:25:04.409

그다음에 이놈은 따로 외워줘야 돼.

00:25:04.509 --> 00:25:09.871

왜냐하면 위는 사실 원칙상은
어떻게 되냐면 w로 출발하고

00:25:09.971 --> 00:25:14.432

우, 어가 나와야 되면
어는 eo죠, eo.

00:25:14.532 --> 00:25:15.209

어는 eo죠.

00:25:15.309 --> 00:25:19.363

그럼 원래는 원칙상은 weo여야
하는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.

00:25:19.463 --> 00:25:23.590

그래서 이게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
이걸 따로 외워야 됩니다.

00:25:23.690 --> 00:25:24.361

적용해 볼게요.

00:25:24.461 --> 00:25:27.653

수원 써보겠습니다.

00:25:29.311 --> 00:25:31.922

Su, 많이 알 것 같아.

00:25:32.022 --> 00:25:34.757

won 이렇게 써버리죠, 그렇죠?

00:25:34.857 --> 00:25:37.981

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
위에 해당하는 부분,

00:25:38.081 --> 00:25:41.728

여기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
wo로 적용됩니다, 실제로.

00:25:41.828 --> 00:25:43.528

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요.

00:25:43.628 --> 00:25:48.201

그리고 마지막 하나, 의의 경우에는
그냥 따로 외우셔야 돼요.

00:25:48.301 --> 00:25:49.746

ui.

00:25:49.846 --> 00:25:52.190

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성.

00:25:52.290 --> 00:25:53.775

마늘 유명한 데.

00:25:53.875 --> 00:25:56.466

Ui로 출발합니다,
의에 해당하는 거.

00:25:56.566 --> 00:26:00.598

그다음에 성, s, 어는
아까 서울 할 때 eo,

00:26:00.698 --> 00:26:03.693

그다음에 받침에 있는 ㅇ은
ng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.

00:26:03.793 --> 00:26:08.558

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
의 적용을 해봤습니다.

00:26:08.658 --> 00:26:09.267

아시겠어요?

00:26:09.367 --> 00:26:12.094

그래서 모음이 어려운 거지
자음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.

00:26:12.194 --> 00:26:16.324

모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 보고
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관계만

00:26:16.424 --> 00:26:21.586

따쳐주시고 몇 개만 예외적인
거 기억하시면 되겠죠?

00:26:21.686 --> 00:26:26.399

그다음, 그러면 이제 여기에
몇 가지 원리들이 더해져 있는데.

00:26:26.499 --> 00:26:29.318

먼저 첫 번째, 붙임 1은
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

00:26:29.418 --> 00:26:34.133

의는 이로 소리나더라도 ui로
그냥 그대로 적겠다는 건데.

00:26:34.233 --> 00:26:36.378

우리 앞서서 표준
발음법을 배웠어요.

00:26:36.478 --> 00:26:38.763

그런데 그 표준 발음법에서
어떤 게 있었습니까?

00:26:38.863 --> 00:26:41.859

바로 자음을 앞에 두고

있는 의의 경우에는

00:26:41.959 --> 00:26:45.197
이로 발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

00:26:45.297 --> 00:26:49.288
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
쓰여 있는 단어를 발음할 때

00:26:49.388 --> 00:26:51.041
우리가 흐이땅.

00:26:51.141 --> 00:26:57.145
원래 의는 발음할 때 의 하면서
혀가 딱 뒤로 빠지면서

00:26:57.245 --> 00:26:58.842
소리가 나게 되는데, 이걸 자음의
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

00:26:58.942 --> 00:27:01.416
흐이땅 이렇게 발음할 수
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27:01.516 --> 00:27:04.781
그래서 애는 자음을 첫소리로
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이렇게

00:27:04.881 --> 00:27:08.506
이로 발음되게 되어 있다가
표준 발음법 원리였는데.

00:27:08.606 --> 00:27:11.723
아무리 표준 발음법의 발음을
따른다 할지라도 붙임 1에

00:27:11.823 --> 00:27:13.066
예외 조항이 걸려 있는 거예요.

00:27:13.166 --> 00:27:17.040
뭐? 이렇게 발음이
된다 할지라도 이걸 지켜주겠다.

00:27:17.140 --> 00:27:25.743
그래서 광희문의 경우에는 실제
발음으로는 광히문이지만,

00:27:25.843 --> 00:27:33.378
h 뒤에 원래 ui가 아니라 발음상으로는
i만 쓰고 끝내야 되겠지만,

00:27:33.478 --> 00:27:37.437
이렇게 적어 준다고 하는 원리 때문에
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거죠.

00:27:37.537 --> 00:27:41.073
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
적용해 본 적이 없으면

00:27:41.173 --> 00:27:43.120
실제 시험장에서는 힘들어요.

00:27:43.220 --> 00:27:46.722

그래서 이 원리들을
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

00:27:46.822 --> 00:27:50.178

그렇지, 이 원리에 따라서
이렇게 ui로 쓰는 거였군.

00:27:50.278 --> 00:27:52.932

한 번 정도 곱셈어 주는
것이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서

00:27:53.032 --> 00:27:56.100

이 문제가 나왔을 때
빨리 적응할 수 있다.

00:27:56.200 --> 00:27:58.008

붙임 2는 의미 없죠.

00:27:58.108 --> 00:28:01.211

장모음, 단모음 이런 건 신경
안 쓰겠다는 얘기였어요.

00:28:01.311 --> 00:28:04.027

이번에는 2항.

00:28:04.127 --> 00:28:05.746

자음입니다, 자음 부분.

00:28:05.846 --> 00:28:08.067

자음은 각호와 같이
적겠다고 얘기했어요.

00:28:08.167 --> 00:28:09.133

어려운 거 없어요.

00:28:09.233 --> 00:28:11.598

어떤 것만 신경 쓰면 되냐면
너무나 뻔한 거야.

00:28:11.698 --> 00:28:13.708

ㄱ 계열 g, k야.

00:28:13.808 --> 00:28:16.046

그런데 여기에서 왜
두 개나 쓰이느냐.

00:28:16.146 --> 00:28:20.855

파열음 계열인 ㅂ, ㄷ, ㄱ.

00:28:20.955 --> 00:28:24.195

비둘기, 바다가 기억나십니까?

00:28:24.295 --> 00:28:28.935

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
두 개씩 로마자가 걸려.

00:28:29.035 --> 00:28:32.171

그런데 이게 위치에
따라 다른 거죠.

00:28:32.271 --> 00:28:36.535

초성에 와 있을 때
g, d, b로 갑니다.

00:28:36.635 --> 00:28:38.167

유성음 계열로 가겠다는 거죠.

00:28:38.267 --> 00:28:40.383

그런데 받침에 들어갔어.

00:28:40.483 --> 00:28:43.489

받침에 ㄱ이나 ㄷ이나
ㅂ이 들어갔어.

00:28:43.589 --> 00:28:47.295

그러면 k, t, p로
가겠다는 얘기에요, 이 원리.

00:28:47.395 --> 00:28:49.322

다음, 된소리 표기가 있어.

00:28:49.422 --> 00:28:53.178

그러면 그때 gg가 아니야
kk로 가, 알겠죠?

00:28:53.278 --> 00:28:55.864

다음, ㄷ도 이렇게 해?

00:28:55.964 --> 00:28:57.316

dd가 아니라 tt로 가.

00:28:57.416 --> 00:28:58.633

이런 건 기억할 수 있어요.

00:28:58.733 --> 00:29:01.324

그다음에 ㅂ, ㅃ도
pp로 가, 이런 원리.

00:29:01.424 --> 00:29:05.234

그다음에 크, 트, 프는 당연히
k, t, p 이렇게 가는 거죠.

00:29:05.334 --> 00:29:12.953

파찰음은 j가 ㅈ, ㅉ은 jj,
츠이 조금 외워줘야 되나요?

00:29:13.053 --> 00:29:14.317

ch, 그렇죠?

00:29:14.417 --> 00:29:15.384

츠이 ch.

00:29:15.484 --> 00:29:20.114

그다음에 마찰음은 ㅅ은 s,
ㅆ ss, ㅎ은 h.

00:29:20.214 --> 00:29:25.910

그다음에 비음은 ㄴ은 n,
ㅁ은 m, ㅇ은 왜 ng야?

00:29:26.010 --> 00:29:28.775

초성에 있는 ㅇ은 어차피
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

00:29:28.875 --> 00:29:32.221

받침으로 있는 ㅇ만 발음으로
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, 그렇지요?

00:29:32.321 --> 00:29:34.956

그래서 ng로 받침에 있는
거 ng 처리되는 거죠.

00:29:35.056 --> 00:29:36.529

유음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.

00:29:36.629 --> 00:29:40.336

유음은 큰 r과 l이 있는데
이거는 그다음에 원리가 있습니다.

00:29:40.436 --> 00:29:44.732

어쨌든 초성에 있는 r, 종성으로
갔을 때 l이라는 것만 알아두고,

00:29:44.832 --> 00:29:46.922

세 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

00:29:47.022 --> 00:29:48.903

밥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?

00:29:49.003 --> 00:29:51.103

초성에 있는 b은 어떻게 간다?

00:29:51.203 --> 00:29:52.241

b로 가는 거야.

00:29:52.341 --> 00:29:58.073

그다음에 a, 그다음에 종성에
있는 b은 p로 간다는 거죠.

00:29:58.173 --> 00:29:59.833

이렇게 해서 bap 이렇게
적어주는 거고요.

00:29:59.933 --> 00:30:03.895

그다음에 어떻게 적어준다?

00:30:03.995 --> 00:30:07.018

코 k죠, 그다음에 o.

00:30:07.118 --> 00:30:08.900

그다음에 끼 그러면 어떻게 쓴다?

00:30:09.000 --> 00:30:12.928

gg가 아니라 kk
이렇게 쓴다는 얘기죠.

00:30:13.028 --> 00:30:17.314

i, 그다음에 리, 큰 초성에
있는 거 r로 갑니다.

00:30:17.414 --> 00:30:21.955

그래서 이제 ri 이렇게
적어주면 되겠고, 코끼리.

00:30:22.055 --> 00:30:24.701
다음 멸치.

00:30:25.831 --> 00:30:31.660
멸치, m, 여 어떻게
썹니까, 여?

00:30:31.760 --> 00:30:35.118
여를 생각하면 이어를
생각하면 된다고요, 이어.

00:30:35.218 --> 00:30:39.988
그럼 이로 출발하는 거 y 반모음에다
어니까 eo를 쓰라고요.

00:30:40.088 --> 00:30:40.866
이렇게 가는 거예요.

00:30:40.966 --> 00:30:44.309
그래서 멸, 그다음에
받침 ㄹ이니까 l.

00:30:44.409 --> 00:30:49.663
그다음에 치는 ch, ㅈ 그다음에
i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.

00:30:49.763 --> 00:30:53.023
이걸 여러분 보고 적으라는 얘기가
아니라 나올 거 아니야, 답지에.

00:30:53.123 --> 00:30:54.997
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.

00:30:55.097 --> 00:30:56.759
그 연습이에요.

00:30:56.859 --> 00:31:00.052
다음, 이제 몇
조항들이 더해집니다.

00:31:00.152 --> 00:31:04.340
이제 발음 변화들을 인정하기 때문에
챙겨줘야 될 요소들이예요.

00:31:04.440 --> 00:31:08.818
불임 l, ㄱ, ㄷ, ㅂ은
모음 앞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

00:31:08.918 --> 00:31:12.710
g, d, b로, 자음 앞에선
어말에서는 k, t, p로 적는다.

00:31:12.810 --> 00:31:14.740
발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.

00:31:14.840 --> 00:31:20.260
그래서 애 잘 보셔야 돼, 이런 거
남여,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.

00:31:20.360 --> 00:31:23.855

받침 ㄱ이다,
k, k 어디 갔어?

00:31:23.955 --> 00:31:25.742

망해, 그러면 틀려.

00:31:25.842 --> 00:31:27.581

여러분, 이거 잘 봐요.

00:31:27.681 --> 00:31:31.951

지명인데, 발음 어떻게 되어야 돼?

00:31:32.051 --> 00:31:33.369

이렇게 되잖아.

00:31:33.469 --> 00:31:36.070

이걸 주의해야 돼, 이거.

00:31:36.170 --> 00:31:37.819

받침에 있는 ㄱ이 아니야.

00:31:37.919 --> 00:31:39.910

발음을 하면 연음이
되어 버리잖아요.

00:31:40.010 --> 00:31:43.493

그래서 백암 이렇게 발음하는
게 아니라 배감 하면서

00:31:43.593 --> 00:31:45.456

ㄱ이 넘어가 버려요, 위로.

00:31:45.556 --> 00:31:47.808

그럼 애는 받침에 있는 ㄱ이 아닌

00:31:47.908 --> 00:31:50.812

초성에 있는 ㄱ이기 때문에
g로 발음하는 거죠.

00:31:50.912 --> 00:31:52.395

g로 로마자 표기하는 거죠.

00:31:52.495 --> 00:31:53.469

이거 주의하셔야 돼요.

00:31:53.569 --> 00:31:57.737

그래서 일단 배에 해당하는
b, 애에 해당하는 ae,

00:31:57.837 --> 00:32:01.753

초성 ㄱ에 해당하는 g,
그다음에 a랑 m 다 잘 썼죠.

00:32:01.853 --> 00:32:03.027

다음, 호법.

00:32:03.127 --> 00:32:04.764

호법분기점 할 때.

00:32:04.864 --> 00:32:09.860
호 Ho, 그다음에 법 할 때 초성에
있는 거 b, 종성에 있는 거 p.

00:32:09.960 --> 00:32:12.262
어에 해당하는 거
eo, 잘 맞춰줬고.

00:32:12.362 --> 00:32:14.228
다음에 월곳 한번 보자고요.

00:32:14.328 --> 00:32:15.968
월곳 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2:16.068 --> 00:32:19.726
월, ㅈ으로 발음이
되는 게 아니죠.

00:32:19.826 --> 00:32:21.431
대표음 처리, ㄷ.

00:32:21.531 --> 00:32:23.086
이거예요, 이걸 반영하는 거야.

00:32:23.186 --> 00:32:25.902
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거
아까 wo였죠, wo.

00:32:26.002 --> 00:32:33.636
그다음에 받침 ㄴ l, 초성 ㄱ
g, o, 그다음에 받침 ㄷ t.

00:32:33.736 --> 00:32:34.643
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

00:32:34.743 --> 00:32:35.697
다음 벚꽃.

00:32:35.797 --> 00:32:38.857
역시 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2:41.001 --> 00:32:43.909
벚꽃 이거로 반영하는 거예요.

00:32:44.009 --> 00:32:50.335
그러면 초성에 있는 b, 어
eo, 그다음에 종성 ㄷ t,

00:32:50.435 --> 00:32:54.045
된소리 ㄱ 그래서 kk,
그다음에 o, 그다음에 t.

00:32:54.145 --> 00:32:54.868
잘 맞춰줬죠.

00:32:54.968 --> 00:32:56.425
그래서 발음 잘 보는 겁니다.

00:32:56.525 --> 00:33:02.674
예를 들어서 네 개
한번 해보도록 하죠.

00:33:11.942 --> 00:33:12.881
어떻게 해야 될까요?

00:33:12.981 --> 00:33:15.342
영덕 어떻게 씁니까, 영덕?

00:33:15.442 --> 00:33:16.952
초성 ㅇ은 쓸 수 없죠.

00:33:17.052 --> 00:33:19.230
그러면 이제 여부터
출발하면 되는 건데,

00:33:19.330 --> 00:33:22.899
여는 아까 지명이니까
초성 대문자로 쓰고요.

00:33:22.999 --> 00:33:24.435
yeo가 되죠.

00:33:24.535 --> 00:33:27.422
이 반모음에서 어를 쓰면 여.

00:33:27.522 --> 00:33:30.300
그다음에 받침 ng 영.

00:33:30.400 --> 00:33:37.028
그다음에 초성에 ㄷ이니까 d,
그다음에 어니까 서울 할 때 eo,

00:33:37.128 --> 00:33:39.581
그다음에 종성에 있는 ㄱ이예요.

00:33:39.681 --> 00:33:43.159
그러니까 k, 영덕 이렇게
쓰면 되겠습니다.

00:33:43.259 --> 00:33:44.653
밥알 어떻게 쓸까요?

00:33:44.753 --> 00:33:48.853
밥알은 초성은 소문자로
써야 되겠죠.

00:33:48.953 --> 00:33:50.750
이거는 이제 지명이 아니니까.

00:33:50.850 --> 00:33:54.568
그래서 ba, 그다음에
p로 써야 됩니까?

00:33:54.668 --> 00:33:57.410
아까 밥 할 때 p이었는데.

00:33:57.510 --> 00:33:58.198
안 돼, 왜?

00:33:58.298 --> 00:33:59.353
애는 발음 어떻게 돼?

00:33:59.453 --> 00:34:02.469
바발 이렇게 된다는 거죠.

00:34:02.569 --> 00:34:06.409
그러니까 ㅂ이 넘어간다는
걸 생각하셔야 돼요.

00:34:06.509 --> 00:34:10.520
이렇게 써야죠, babal.

00:34:10.620 --> 00:34:11.747
그렇죠, 연음되는 것 때문에.

00:34:11.847 --> 00:34:13.799
초성 ㅂ으로 넘어가는
거 기억하시고요.

00:34:13.899 --> 00:34:20.032
부엌, bu, 그다음에 어 eo,
그다음에 엇, ㄱ 안 되죠?

00:34:20.132 --> 00:34:20.821
뭐로 갑니까?

00:34:20.921 --> 00:34:21.670
ㄱ으로.

00:34:21.770 --> 00:34:26.930
그런데 받침 ㄱ도 어쨌든
k로는 표기가 되죠.

00:34:27.030 --> 00:34:27.968
애는 발음 어떻게 돼요?

00:34:28.068 --> 00:34:30.458
흠 하고 ㄹ 발음되는
거 아니잖아요.

00:34:30.558 --> 00:34:31.559
발음 따라잡니다.

00:34:31.659 --> 00:34:32.888
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.

00:34:32.988 --> 00:34:34.152
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.

00:34:34.252 --> 00:34:39.365
heu죠.

00:34:40.748 --> 00:34:43.441
으는 eu, 그다음에
k 쓰면 되는 거죠.

00:34:43.541 --> 00:34:46.333
혹 이렇게 쓰면 됩니다, 됐죠?

00:34:46.433 --> 00:34:50.265
그다음 붙임 2, ㄹ의 경우인데.

00:34:50.365 --> 00:34:54.330

르이 모음 앞에서는 r로 가고
자음 앞이나 어말 앞에서는

00:34:54.430 --> 00:34:57.770

l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
봤는데, 이런 게 있어요.

00:34:57.870 --> 00:35:01.382

만약에 연속적으로 받침에도 르이고,
그다음에도 르이 나오면

00:35:01.482 --> 00:35:02.996

ll로 적겠다는 거예요.

00:35:03.096 --> 00:35:04.272

이것까지 합쳐서.

00:35:04.372 --> 00:35:05.525

그럼 잘 봅시다.

00:35:05.625 --> 00:35:08.793

설악인데, 애도 발음
따라가는 거야.

00:35:08.893 --> 00:35:11.840

종성에 있는 르이구나, l이구나.

00:35:11.940 --> 00:35:12.929

아니네.

00:35:13.029 --> 00:35:14.729

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, 이제?

00:35:14.829 --> 00:35:16.351

연음되잖아, 서락.

00:35:16.451 --> 00:35:17.681

연음돼, 연음.

00:35:17.781 --> 00:35:20.471

그러면 르이 l로 갈 게 아니라

00:35:20.571 --> 00:35:22.404

초성에 있는 r로
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.

00:35:22.504 --> 00:35:24.282

그다음에 칠곡입니다.

00:35:24.382 --> 00:35:27.603

받침에 있는 르이 l로
처리되는 거 맞죠.

00:35:27.703 --> 00:35:29.618

다음, 울릉 보세요, 울릉.

00:35:29.718 --> 00:35:34.099

울릉을 보니까 발음이 르과
르이 연달아 가 있어.

00:35:34.199 --> 00:35:37.837

이때 초성에 있는 ㄹ을
r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

00:35:37.937 --> 00:35:40.851
연달아 있을 때는 ll을
쓰겠다는 얘기에요.

00:35:40.951 --> 00:35:43.507
Ulleung 이렇게.

00:35:43.607 --> 00:35:46.416
다음, 애 발음 한번 잘 보세요.

00:35:46.516 --> 00:35:49.327
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5:49.983 --> 00:35:55.025
대관령이 아니라 대괄령,
유음화 벌어지죠.

00:35:55.125 --> 00:35:57.072
대괄령이야, 대괄령.

00:35:57.172 --> 00:36:01.828
역시나 애도 ㄹ, ㄹ이 연달아
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줘.

00:36:01.928 --> 00:36:03.360
이런 거 보통 틀리게
한단 말이에요.

00:36:03.460 --> 00:36:04.453
이거 주의.

00:36:04.553 --> 00:36:07.910
그럼 나머지 한번 가봅시다.

00:36:08.010 --> 00:36:13.904
절임, 그다음에 울산,
그다음에 별내, 신도시인데.

00:36:14.004 --> 00:36:15.380
그럼 이렇게 적어 볼게요.

00:36:15.480 --> 00:36:18.452
절임의 경우에는 j로
출발해야 되겠죠.

00:36:18.552 --> 00:36:20.013
어니까 eo고요.

00:36:20.113 --> 00:36:24.424
그다음에 ㄹ이 l인데
애 발음 어떻게 된다?

00:36:24.524 --> 00:36:26.412
저림으로 가죠.

00:36:26.512 --> 00:36:30.051
그러니까 초성 ㄹ로 넘어간
거 r로 가줘야 되고요.

00:36:30.151 --> 00:36:33.851
그다음에 im 쓰면 되겠네, 임.

00:36:33.951 --> 00:36:36.835
울산, 애는 대문자 써야 되겠죠.

00:36:36.935 --> 00:36:38.106
U 우에 해당하는 거.

00:36:38.206 --> 00:36:42.751
그다음에 l, 그다음에 san
이렇게 쓰면 되겠죠.

00:36:42.851 --> 00:36:45.437
다음 애는 별내, 별내
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6:45.537 --> 00:36:48.168
유음화, 별래.

00:36:48.268 --> 00:36:52.801
그러면 애는 르, 르이
연달아 있는 걸 고려해서

00:36:52.901 --> 00:36:56.412
초성 대문자, 그다음에
y 써야 되겠죠?

00:36:56.512 --> 00:36:57.838
yeo, 여니까.

00:36:57.938 --> 00:37:04.161
그다음에 ll,
대구 할 때 ae, 그렇죠?

00:37:04.261 --> 00:37:07.996
애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37:09.067 --> 00:37:11.726
표기상의 유의점들.

00:37:11.826 --> 00:37:14.911
발음 변화에 대한 거를
잘 주의하시라고 하면서

00:37:15.011 --> 00:37:16.413
3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.

00:37:16.513 --> 00:37:18.287
이렇게합니다.

00:37:18.387 --> 00:37:21.631
1항, 음운 변화가 일어날
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

00:37:21.731 --> 00:37:23.662
다음 각호와 같이
적는다고 했습니다.

00:37:23.762 --> 00:37:25.439

동화 현상을 인정해요.

00:37:25.539 --> 00:37:26.683
가봅시다.

00:37:26.783 --> 00:37:29.286
백마의 경우에 발음 어떻게 된다?

00:37:29.386 --> 00:37:32.224
백마가 아니라 발음 뱅마로 가요.

00:37:32.324 --> 00:37:34.858
그러니까 ㅁ이 ㄱ에
비음화를 일으키죠.

00:37:34.958 --> 00:37:39.098
그래서 k로 안 가고 ng로
가는 걸 볼 수 있죠.

00:37:39.198 --> 00:37:41.812
그래서 자음 동화 인정합니다.

00:37:41.912 --> 00:37:43.697
역시나 애 발음 어떻게 돼요?

00:37:43.797 --> 00:37:46.393
중노로 발음되죠.

00:37:46.493 --> 00:37:49.905
그러니까 초성에 있는 ㄹ이
r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

00:37:50.005 --> 00:37:51.932
n으로 처리되는 걸
볼 수가 있어요.

00:37:52.032 --> 00:37:52.968
이 원리.

00:37:53.068 --> 00:37:55.157
다음, 애도 발음 한번 해봅시다.

00:37:55.257 --> 00:37:56.494
애 발음 어떻게 돼요?

00:37:56.594 --> 00:38:01.765
왕십리가 아니라 왕심니로 바뀌죠.

00:38:01.865 --> 00:38:04.775
그래서 뒤에 있는 ㄹ이
ㄴ으로 먼저 바뀌고

00:38:04.875 --> 00:38:06.882
그 ㄴ에 의해서 앞에
있는 것도 비음화 되고.

00:38:06.982 --> 00:38:09.552
그래서 최종 발음이 이게
나와야 되기 때문에

00:38:09.652 --> 00:38:12.859

받침 p나 r이나 이런 거
볼 수가 없어요, 그렇지요?

00:38:12.959 --> 00:38:17.227

ㅁ인 m, 초성인 n 이런
거 지금 보이는 거죠.

00:38:17.327 --> 00:38:19.579

그래서 이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.

00:38:19.679 --> 00:38:21.100

다음, 애도 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8:21.200 --> 00:38:22.113

애는 유음화 되겠죠.

00:38:22.213 --> 00:38:25.821

실라 이렇게 해서 유음화 되니까
ㄹ, ㄹ을 연달아 있는

00:38:25.921 --> 00:38:29.293

ㄴ로 처리되는 거, 이런 원리.

00:38:29.393 --> 00:38:32.512

다음, 이거 지금 서울에
있는 역 이름이죠.

00:38:32.612 --> 00:38:35.941

그런데 애를 발음할 때 만약에
학여울역 이러면 이거 절대

00:38:36.041 --> 00:38:37.328

표기 안 나와요.

00:38:37.428 --> 00:38:40.743

그러니까 애 발음이 이렇게
발음되는 거냐면 ㄴ이 첨가돼서

00:38:40.843 --> 00:38:42.923

항녀울 이렇게 발음됩니다.

00:38:43.023 --> 00:38:49.995

그래서 애는 발음 자체가
항녀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

00:38:50.095 --> 00:38:51.309

이걸 적용해주셔야 돼요.

00:38:51.409 --> 00:38:54.419

그래서 항에 해당하는
Hang까지 맞았고요.

00:38:54.519 --> 00:38:57.989

그다음에 ㄴ n, 그다음에
여에 해당하는 yeo,

00:38:58.089 --> 00:39:00.349

그다음에 울에 해당하는 ul.

00:39:00.449 --> 00:39:01.661

다 맞춰줬죠?

00:39:01.761 --> 00:39:04.188

알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,
발음 어떻게 됩니까?

00:39:04.288 --> 00:39:06.481

알약이죠.

00:39:06.581 --> 00:39:09.480

먼저 ㄴ이 들어왔다가
ㄴ에 ㄹ에 의해서

00:39:09.580 --> 00:39:11.188

결국 ㄹ로 바뀔 것이고.

00:39:11.288 --> 00:39:16.013

역시 마찬가지로, ㄴ이,
ㄹ ㄹ이 있기 때문에

00:39:16.113 --> 00:39:17.959

ㄴ로 처리되어 있는
거 볼 수 있죠.

00:39:18.059 --> 00:39:22.845

그리고 ya, 야에 해당하는 것과
받침 ㄱ, k에 해당하는 거

00:39:22.945 --> 00:39:23.517

잘 써줬어요.

00:39:23.617 --> 00:39:26.861

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
예를 줘서 설명을 해주는데.

00:39:26.961 --> 00:39:30.550

일단 여러분이 적용해줘야 되는 거,
음운 변동 인정한다는 겁니다.

00:39:30.650 --> 00:39:31.669

음운 변동 인정해줘요.

00:39:31.769 --> 00:39:32.696

어떤 음운 변동?

00:39:32.796 --> 00:39:33.549

자음 변화들.

00:39:33.649 --> 00:39:37.067

그래서 동화 현상, 자음
동화 현상, 그렇죠?

00:39:37.167 --> 00:39:40.228

비음화 현상, 그다음에 이제 첨가,
ㄴ 첨가 현상 이런 거.

00:39:40.328 --> 00:39:42.674

비음화, 유음화 첨가 현상.

00:39:42.774 --> 00:39:45.895

다음, 구개음화 인정해줘요.

00:39:45.995 --> 00:39:51.020

그래서 해도디가 아니라 이거
형식 형태소니까 어떻게 되죠?

00:39:51.120 --> 00:39:52.591

해도지로 발음되잖아요.

00:39:52.691 --> 00:39:55.083

그래서 j로 바뀐 거 보이죠?

00:39:55.183 --> 00:39:59.462

다음, 굳히다의 경우에는 ㄷ,
ㅎ이 줄어 ㅌ 되었다가

00:39:59.562 --> 00:40:01.841

이 모습 앞에 와서 구치다가 되죠.

00:40:01.941 --> 00:40:06.076

그래서 치에 해당하는
chi를 맞춰줍니다.

00:40:06.176 --> 00:40:07.640

그래서 구개음화도 인정해주고요.

00:40:07.740 --> 00:40:09.134

그다음에 4번 보세요.

00:40:09.234 --> 00:40:12.003

ㄱ, ㄷ, ㅂ,
ㅈ이 ㅎ과 합해

00:40:12.103 --> 00:40:14.509

거센소리가 만들어지는
걸 뭐라고 해요?

00:40:14.609 --> 00:40:16.648

거센소리화 축약 현상이라고 하는데.

00:40:16.748 --> 00:40:17.499

축약도 인정해요.

00:40:17.599 --> 00:40:18.955

발음으로 반영해줍니다.

00:40:19.055 --> 00:40:23.006

그래서 좋고 하면 ㅎ 안
살려줬어요, h 없잖아.

00:40:23.106 --> 00:40:26.962

그래서 ㅎ과 ㄱ이 줄어든
조코, k로 가버리고요.

00:40:27.062 --> 00:40:29.054

다음, 잡혀 같은 경우도
한번 써볼까요?

00:40:29.154 --> 00:40:33.367

애는 자퍼 이렇게 쓸 거
아니야, 자퍼 이렇게 쓰죠.

00:40:33.467 --> 00:40:35.483

ㅂ하고 ㅎ이 줄어
표으로 되니까.

00:40:35.583 --> 00:40:36.573
이대로 반영해주는 거예요.

00:40:36.673 --> 00:40:40.488
그래서 ja 써주고, 표에
해당하는 p 써주고,

00:40:40.588 --> 00:40:43.278
여 해당하는 yeo 써주고, 맞죠?

00:40:43.378 --> 00:40:45.730
그런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.

00:40:45.830 --> 00:40:50.688
다만 체언에서 ㄱ, ㄷ,
ㅂ 뒤에 ㅎ이 따를 때는

00:40:50.788 --> 00:40:52.548
ㅎ을 밝혀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.

00:40:52.648 --> 00:40:57.385
지금 여러분, 이 4번의 내용을
보면 좋거나 또는 잡혀는

00:40:57.485 --> 00:40:59.825
용언의 활용에서 지금
만들어진 거죠.

00:40:59.925 --> 00:41:03.669
그런데 지금 체언이라고 하는 건
명사, 대명사를 얘기하는데

00:41:03.769 --> 00:41:04.712
명사, 대명사, 수사.

00:41:04.812 --> 00:41:07.884
대명사나 수사는 어차피 뭐
로마자자로 나올 이유도 없고,

00:41:07.984 --> 00:41:08.996
명사를 얘기해요.

00:41:09.096 --> 00:41:12.522
그래서 지명 같은 경우
명사가 만약에 받침과

00:41:12.622 --> 00:41:15.498
그 뒤에 ㅎ이 합쳐져서
거센소리가 나오더라도

00:41:15.598 --> 00:41:18.281
ㅎ을 살려주라는
원칙을 적용해줍니다.

00:41:18.381 --> 00:41:20.823
그래서 유명한 항
이름이죠, 묵호항.

00:41:20.923 --> 00:41:26.557

목호를 쓸 때 물론
발음으로는 이게 돼요.

00:41:26.657 --> 00:41:28.699

이게 되면, 이대로
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?

00:41:28.799 --> 00:41:32.051

무코가 되어야 되는데,
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.

00:41:32.151 --> 00:41:34.224

h를 살려주래요, ㅎㅎ.

00:41:34.324 --> 00:41:35.113

그럼 어떻게 쓰겠죠?

00:41:35.213 --> 00:41:37.019

이걸 그대로 반영해주면 됩니다.

00:41:37.119 --> 00:41:42.803

무 이렇게 ㄱ, 그다음에 h
살려주고 호를 쓰겠다는 얘기죠,

00:41:42.903 --> 00:41:44.670

그 원리대로.

00:41:44.770 --> 00:41:46.353

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.

00:41:46.453 --> 00:41:47.122

왜?

00:41:47.222 --> 00:41:49.997

체언이니까, 그거예요.

00:41:50.097 --> 00:41:53.965

다음, 붙임 조항입니다.

00:41:54.065 --> 00:41:56.433

반영 안 하는 음운 변동이에요.

00:41:56.533 --> 00:41:58.402

된소리되기는 인정 안 합니다.

00:41:58.502 --> 00:41:59.776

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.

00:41:59.876 --> 00:42:01.789

형태가 된소리 표기가
되어 있는 거.

00:42:01.889 --> 00:42:05.625

아까 벚꽃 같은 앞에 꽃
할 때 kk 써주는 거,

00:42:05.725 --> 00:42:08.527

그거는 반영해줘야 되는데,
애 발음 어떻게 되죠?

00:42:08.627 --> 00:42:11.003
압꾸정, 다음 발음 어떻게 돼요?

00:42:11.103 --> 00:42:12.792
낙똥강 이렇게 발음되죠?

00:42:12.892 --> 00:42:14.813
셋뻔 이렇게 발음되죠.

00:42:14.913 --> 00:42:19.943
그럼 여기에 꾸나 똥이나 뻔 이런
것들을 된소리 표기 해줄 거냐.

00:42:20.043 --> 00:42:21.280
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.

00:42:21.380 --> 00:42:25.777
그래서 압꾸 할 때 만약에 된소리
반영하면 kk가 나와야겠지만,

00:42:25.877 --> 00:42:27.746
그냥 g로만 가는 걸 볼 수 있고.

00:42:27.846 --> 00:42:33.315
낙똥 한다고 해서 tt로 가지 않고 d
한 번 써주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.

00:42:33.415 --> 00:42:37.501
뻔 한다고 해서 pp 안 쓰고 b
써주는 거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.

00:42:37.601 --> 00:42:39.070
셋뻔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까요?

00:42:39.170 --> 00:42:40.642
어떻게 됩니까?

00:42:40.742 --> 00:42:43.733
 쌤 된소리 반영 안 할 테니까
이대로 표기해줘야겠죠.

00:42:43.833 --> 00:42:47.944
그래서 새에 해당하는 sae,
그다음에 받침 ㄷ t,

00:42:48.044 --> 00:42:51.960
그다음에 b, 그다음에
yeo, 그다음에 l.

00:42:52.060 --> 00:42:53.047
잘 써줬죠?

00:42:53.147 --> 00:42:55.781
우리 예문, 이 네 개
써주면 되겠습니다.

00:42:55.881 --> 00:42:58.009
식혜.

00:42:59.727 --> 00:43:00.994
명사죠, 여러분.

00:43:01.094 --> 00:43:02.838
발음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?

00:43:02.938 --> 00:43:07.318
시케, 된소리 발음 나오니까 케.

00:43:07.418 --> 00:43:10.280
물론 모음의 이 예도
변화가 있어요.

00:43:10.380 --> 00:43:13.097
그런데 이런 건 모음
변화는 이제 끝난 거야.

00:43:13.197 --> 00:43:15.855
더 이상은 없어, 음운 변동
더 이상 인정 안 해.

00:43:15.955 --> 00:43:18.346
그래서 모음은 이거대로
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.

00:43:18.446 --> 00:43:19.720
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?

00:43:19.820 --> 00:43:21.661
이렇게 쓸 거냐, 이렇게 쓸 거냐.

00:43:21.761 --> 00:43:23.329
이렇게 써줘야 된다.

00:43:23.429 --> 00:43:23.868
왜?

00:43:23.968 --> 00:43:25.259
체언이니까.

00:43:25.359 --> 00:43:27.444
거센소리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.

00:43:27.544 --> 00:43:28.116
이대로 씁니다.

00:43:28.216 --> 00:43:29.062
그러면 어떻게 쓰죠?

00:43:29.162 --> 00:43:32.046
이건 소문자죠.

00:43:32.146 --> 00:43:37.511
sikh, 예는 어떻게 씁니까?

00:43:37.611 --> 00:43:39.142
이에를 쓰면 되죠.

00:43:39.242 --> 00:43:43.080
그러면 y로 출발하고
예를 쓰면 되는 거니까

00:43:43.180 --> 00:43:45.701

제주 할 때 ye 이거
쓰면 되는 거죠.

00:43:45.801 --> 00:43:51.608

제주 할 때 jeju 하는 이
e는 여기에 쓰면 되죠.

00:43:51.708 --> 00:43:55.716

그다음에 윗놀이 가봅시다, 윗놀이.

00:43:56.698 --> 00:43:59.386

이거 발음 한번 가볼까요?

00:44:00.304 --> 00:44:03.248

츠이 ㄷ으로 바뀌겠네요.

00:44:03.348 --> 00:44:06.938

그다음에 이렇게 되고,
ㄹ이 넘어가겠네요.

00:44:07.038 --> 00:44:09.281

그런데 이게 한 번
더 변해야 되겠죠.

00:44:09.381 --> 00:44:11.981

ㄷ이 ㄴ에 의해
비음화가 됩니다.

00:44:12.081 --> 00:44:15.463

최종 발음은 이게 되겠네요,
윤노리가 되겠군요.

00:44:15.563 --> 00:44:17.328

그럼 이대로 쓰면 됩니다.

00:44:17.428 --> 00:44:18.673

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?

00:44:18.773 --> 00:44:20.703

yu, u에 해당하죠.

00:44:20.803 --> 00:44:27.323

그다음에 받침 n, 초성도
n, o, 그다음에 ri.

00:44:27.423 --> 00:44:29.663

윗놀이 이렇게, 잘 맞았습니까?

00:44:29.763 --> 00:44:33.004

세 번째 법륜사 한번 가보세요.

00:44:33.885 --> 00:44:35.433

절 이름이에요.

00:44:35.533 --> 00:44:38.872

이거는 고유명사니까
대문자로 써야겠네요.

00:44:38.972 --> 00:44:40.910

어떻게 발음합니까?

00:44:41.010 --> 00:44:47.073

범눈사가 되겠죠, 이대로
쓰면 되겠죠, 그렇죠?

00:44:47.173 --> 00:44:47.829

그래서 어떻게?

00:44:47.929 --> 00:44:51.154

Beom, 범에 해당하죠.

00:44:51.254 --> 00:44:58.715

그다음에 n, 그다음에 yu,
그다음에 n, 다시 sa.

00:44:58.815 --> 00:45:01.513

그다음 마지막 죽녹원.

00:45:01.613 --> 00:45:02.893

담양에 있는 곳인데요.

00:45:02.993 --> 00:45:04.079

되게 좋아요.

00:45:04.179 --> 00:45:06.218

예빠요.

00:45:06.318 --> 00:45:07.704

이것도 이제 어떻게 쓰겠다?

00:45:07.804 --> 00:45:11.009

발음을 한번 잘 봅시다.

00:45:11.109 --> 00:45:16.498

중, 비음화 벌어지니까
중노, ㄱ 연음되죠.

00:45:16.598 --> 00:45:18.172

중노권 이렇게 되는 거.

00:45:18.272 --> 00:45:20.453

이거대로 써야 돼요, 중노권.

00:45:20.553 --> 00:45:28.652

그러면 Jung 중, 그다음에 no,
그다음에 초성에 있는 거 g,

00:45:28.752 --> 00:45:30.848

그다음에 위에 해당하는 거
어떻게 쓰기로 했어요?

00:45:30.948 --> 00:45:35.097

wo, 그다음에 n
이렇게 쓰면 됩니다.

00:45:35.197 --> 00:45:36.068

됐죠?

00:45:36.168 --> 00:45:38.398

다음, 2항입니다.

00:45:38.498 --> 00:45:40.987

여기에서부터는 이제
음운 변동은 끝났어요.

00:45:41.087 --> 00:45:44.105

음운 변동 조건 어떤 것들을
지킨다는 얘기는 다 끝났고요.

00:45:44.205 --> 00:45:46.684

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이 주어지는데.

00:45:46.784 --> 00:45:50.127

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
때는 로마자 표기한 것에

00:45:50.227 --> 00:45:52.441

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
수 있다는 조항이에요.

00:45:52.541 --> 00:45:57.086

그래서 애는 어떤 방법을 쓸
거냐면 만약에 붙임표가 없다면

00:45:57.186 --> 00:45:59.428

어떤 발음이 나올
수도 있다는 거죠?

00:45:59.528 --> 00:46:05.032

외국인이 붙임표가 없어, 그러면
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?

00:46:05.132 --> 00:46:06.896

이렇게 끊어 읽을 수
있어요, 사람이.

00:46:06.996 --> 00:46:07.897

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

00:46:07.997 --> 00:46:09.806

준강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.

00:46:09.906 --> 00:46:12.756

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
있으니까 붙임표를 넣어줘서

00:46:12.856 --> 00:46:15.735

중양 이렇게 읽게끔
만들어주겠다는 거죠.

00:46:15.835 --> 00:46:19.261

애 만약에 붙임표 없으면
뭐라고 읽을 수도 있다?

00:46:19.361 --> 00:46:20.860

eu가 으로 발음되잖아요.

00:46:20.960 --> 00:46:25.465

그래서 순상가, 세운상가인데 순상가
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.

00:46:25.565 --> 00:46:27.080

애는요?

00:46:27.180 --> 00:46:28.860
반구대 암각화.

00:46:28.960 --> 00:46:32.551
그런데 애가 만약에 붙임표 없으면
여기에서 끊어 읽을 수 있잖아요.

00:46:32.651 --> 00:46:35.887
그럼 방우대 이렇게 읽을
수도 있어요, 방우대.

00:46:35.987 --> 00:46:40.601
애도 똑같이 하은대 이렇게
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

00:46:40.701 --> 00:46:43.381
그래서 붙임표를 적절하게
넣어줌으로 하여금

00:46:43.481 --> 00:46:46.258
발음을 정확하게 유도하는
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.

00:46:46.358 --> 00:46:49.420
그래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
있을 때는 붙임표를 넣어주고,

00:46:49.520 --> 00:46:52.609
없을 때는 어떤 발음이
나올지도 예측해 봅니다.

00:46:52.709 --> 00:46:57.567
다음 3항,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
대문자로 적는 거, 맞죠.

00:46:57.667 --> 00:47:02.268
그다음에 4항, 인명은 성과
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는데.

00:47:02.368 --> 00:47:04.013
이름은 붙여 쓰는
것을 원칙으로 하되

00:47:04.113 --> 00:47:07.101
음절 사이에 붙임표를
쓰는 것도 허용한다.

00:47:07.201 --> 00:47:11.506
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,
2음절, 3음절째에 붙임표를

00:47:11.606 --> 00:47:14.017
사이에 끼워 주는 것도
괜찮다는 겁니다.

00:47:14.117 --> 00:47:17.363
그래서 민용하 이런 식으로
성, 그다음에 이름 썼는데.

00:47:17.463 --> 00:47:20.787

1번에 보면 이름에서
일어나는 음운 변화는

00:47:20.887 --> 00:47:22.127
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.

00:47:22.227 --> 00:47:24.893
그러니까 비음화, 유음화 이런
거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.

00:47:24.993 --> 00:47:25.789
무슨 소리냐?

00:47:25.889 --> 00:47:30.063
원래 성이 한 씨고,
이름이 복남인데.

00:47:30.163 --> 00:47:32.205
이 사람의 발음은
어떻게 되겠습니까?

00:47:32.305 --> 00:47:35.677
한봉남으로 발음이 돼요.

00:47:35.777 --> 00:47:39.760
그럼 이걸 ng로 반영해줘야
되는데, 가만히 보시면 안 하죠?

00:47:39.860 --> 00:47:40.789
왜 그렇다?

00:47:40.889 --> 00:47:43.097
이름에서 일어나는
음운 변동이기 때문에

00:47:43.197 --> 00:47:45.049
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.

00:47:45.149 --> 00:47:47.637
그래서 이름에서
일어나는 건 안 하고.

00:47:47.737 --> 00:47:52.728
다음,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
했는데, 정한 적 없어요.

00:47:52.828 --> 00:47:58.518
그래서 여러분, 여권에 성 표기할 때
여러분 마음대로 기재해도 돼요.

00:47:58.618 --> 00:48:01.288
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김 씨다.

00:48:01.388 --> 00:48:05.025
로마자 표기에 의하면 어떻게 써야
되냐면, 이렇게 써야 돼요.

00:48:05.125 --> 00:48:07.322
이 씨다, 이거예요.

00:48:07.422 --> 00:48:08.611

그런데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.

00:48:08.711 --> 00:48:09.299

어떻게 씹니까?

00:48:09.399 --> 00:48:12.709

이렇게 쓰기도 하고

그다음에 이진 Lee.

00:48:12.809 --> 00:48:14.412

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?

00:48:14.512 --> 00:48:18.101

또는 Yi 써서 여권에 넣었다?

00:48:18.201 --> 00:48:19.607

괜찮아요, 들어가요 이것도.

00:48:19.707 --> 00:48:24.909

그래서 이진 성은 따로

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.

00:48:25.009 --> 00:48:29.757

5항, 도, 시, 군, 구, 읍,

면, 리, 동 등의 행정구역 단위와

00:48:29.857 --> 00:48:35.422

거리를 얘기하는 길, 도로명

주소로 많이 바뀌었잖아요.

00:48:35.522 --> 00:48:38.527

그래서 ~가는 각각 이런

식으로 이제 적어주는데

00:48:38.627 --> 00:48:40.125

앞에 붙임표를 넣어줍니다.

00:48:40.225 --> 00:48:43.712

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.

00:48:43.812 --> 00:48:48.039

붙임표의 앞과 뒤에서 일어나는

음운 변동을 인정 안 해요.

00:48:48.139 --> 00:48:49.482

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.

00:48:49.582 --> 00:48:51.047

이겁니다.

00:48:51.147 --> 00:48:53.856

삼죽이라고 하는 이름을

가진 면이에요.

00:48:53.956 --> 00:49:00.398

삼죽면인데, 애가 발음상

삼중면이 되죠.

00:49:00.498 --> 00:49:04.919

면에 의해서, ㅁ에 의해서 앞에

있는 ㅁ이 비음화 일어나거든요.

00:49:05.019 --> 00:49:06.913
그런데 ng로 반영하지 않아요.

00:49:07.013 --> 00:49:12.107
왜냐하면 이 면, 행정구역 면
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

00:49:12.207 --> 00:49:14.568
인정 안 하고 그냥
k로 그대로 가버리죠.

00:49:14.668 --> 00:49:15.822
또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49:15.922 --> 00:49:19.968
인왕리의 경우에도 리를 지금
행정구역명을 보고 있는데.

00:49:20.068 --> 00:49:23.191
발음상은 인왕리로 가죠.

00:49:23.291 --> 00:49:27.306
그러면 니로 가니까 여기에 ni로
써야 될 텐데 r로 쓴다는 것은

00:49:27.406 --> 00:49:29.132
역시나 어떻게 된다?

00:49:29.232 --> 00:49:32.368
발음을 인정 안 한다, 앞뒤에서
일어나는 발음이기 때문에.

00:49:32.468 --> 00:49:36.598
그래서 이거는 표기대로 리로
써주는 걸 볼 수 있어요.

00:49:36.698 --> 00:49:39.263
불임의 내용을 보면 시,
군, 읍의 경우에는

00:49:39.363 --> 00:49:40.786
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.

00:49:40.886 --> 00:49:45.711
그래서 시 없이 청주 이런 거로
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.

00:49:46.573 --> 00:49:52.818
6항은 자연 지물명, 문화재명,
인공 축조물 등 이런 것들은

00:49:52.966 --> 00:49:53.637
불임표 없이.

00:49:53.737 --> 00:49:58.153
굳이 남산 여기 불임표 쓰고,
경북 불임표 궁, 독립 불임표

00:49:58.253 --> 00:49:59.990
이런 식으로 안 쓰겠다는 겁니다.

00:50:00.090 --> 00:50:02.633

그래서 아까 행정구역명
말고는 붙임표 안 써요.

00:50:02.733 --> 00:50:05.077

그런데 이제 이런
질문할 수 있겠네요.

00:50:05.177 --> 00:50:11.346

선생님,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인공
축조물, 문화재명 이런 것들에

00:50:11.446 --> 00:50:15.392

만약에 아까처럼 세운, 반구대 이런
것처럼 헛갈리면 어떻게 해요?

00:50:15.492 --> 00:50:19.319

그때는 붙임표 써도 되는
거죠, 그때는 헛갈리니까.

00:50:19.419 --> 00:50:19.956

마지막입니다.

00:50:20.056 --> 00:50:23.762

7항, 인명, 회사명, 단체명 등은
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.

00:50:23.862 --> 00:50:27.180

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거 표기
보시면 로마자 표기랑 안 맞아요.

00:50:27.280 --> 00:50:28.615

그런데 쓰라 이겁니다.

00:50:28.715 --> 00:50:33.087

그리고 8항에는 학술 용어에서
쓰이는 걸 얘기하는데.

00:50:33.187 --> 00:50:34.780

거기까지는 할 필요도
없는 것 같고요.

00:50:34.880 --> 00:50:38.100

이렇게 해서 로마자 표기가
마무리가 됐습니다.

00:50:38.200 --> 00:50:42.096

우리 20강에 걸쳐서 현대문법
전부 다 공부했는데.

00:50:42.196 --> 00:50:43.803

굉장히 긴 내용이에요, 사실은.

00:50:43.903 --> 00:50:46.101

그리고 되게 자세하게
들어간 거였기 때문에

00:50:46.201 --> 00:50:49.456

여러분이 이보다 더 자세한 강의는
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.

00:50:49.556 --> 00:50:52.517

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
부족한 것 같다고 한다면

00:50:52.617 --> 00:50:53.887

강의를 또 들으면 돼요.

00:50:53.987 --> 00:50:56.786

강의를 또 들으면
어딘가에 내가 얘기했어.

00:50:56.886 --> 00:50:59.010

정확하게 그 지점에 얘기를
했어요, 아시겠죠?

00:50:59.110 --> 00:51:02.779

그 정도로 명쾌하게 명료하게
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

00:51:02.879 --> 00:51:06.402

이 강의로 일단 여러분이
고등 과정에서의 모든 문법은

00:51:06.502 --> 00:51:08.101

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

00:51:08.201 --> 00:51:09.124

뭐 하셔야 돼요, 이제?

00:51:09.224 --> 00:51:09.994

문제 푸셔야 돼요.

00:51:10.094 --> 00:51:13.826

그래서 문제를 계속 적용하시면서
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했을 때는

00:51:13.926 --> 00:51:15.227

문제 푸는 게 겁나면 안 됩니다.

00:51:15.327 --> 00:51:19.257

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면 풀수록
맞고 맞고 또 맞고 정확한 정답,

00:51:19.357 --> 00:51:22.192

수학 문제 정답 찾는 것처럼 이런
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.

00:51:22.292 --> 00:51:23.728

그래서 여러분, 파이팅 하시고.

00:51:23.828 --> 00:51:24.434

화이팅 아니죠?

00:51:24.534 --> 00:51:28.038

파이팅 하시고 좋은 문법에서
앞에 있는 문제 다섯 문제

00:51:28.138 --> 00:51:31.549

딱 쉽게 풀 수 있는 그런
실력 갖추길 기원하겠습니다.

00:51:31.649 --> 00:51:32.345
수고하셨습니다.

00:51:32.445 --> 00:51:34.527
다음에 좋은 강의로 또
만나도록 할게요.

00:51:34.627 --> 00:51:36.026
수고하셨습니다.